第278回國會 (定期會)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錄 第 11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8年11月13日(木)

場 所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審査된案件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 1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1
   나.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박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9년도 예산안(계속)

가. 외교통상부 소관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외교통상부 소관(국제교류기금)

○위원장 박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외교통상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들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수정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들 수정안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오늘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 관계로 11시경에 이석하였다가 오후 3시에 다시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외교장관 회담 일정이 오늘 중복되게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사 협의를 거쳐서 장관 회담을 마치고 다시 오후에 상임위로 돌아오셔서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에 우리 상임위에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여야 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한미 FTA의 경제적인 효과와 보완대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네 분의 진술인들이 참석해서 FTA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그리고 윤석원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그리고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대단히 심도 깊고 진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제 공청회에서는 지금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 또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비해서 비준 시점을 조절해야

된다는 의견,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열띤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와 또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등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한미 FTA 문제를 논의했던 심도 깊고 의미 있는 공청회였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당론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공청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피해 보완대책 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외통위원장 명의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게 피해 보완대책에 대한 농수산위의 의견을 종합해서 보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11일까지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에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여당인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완대책을 요구했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위와 또 야당의 보완대책이 나오는 대로 이것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FTA 비준동의안을 합의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우리가 미국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초당적인 방문단을 구성해서 미국 워싱턴 현지에 가서 상하 양원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신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는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17, 18, 19일 3일 동안 미국 의회의 레임덕 세션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의회가 개최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내실 있는 우리 외통위 의원외교 활동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통상부에서도 주미 대사관을 통해서 활동의 프로그램과 또 면담 인사들에 대한 면담 주선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우리 주미 대사관에 오늘 다시 한번 전문을 내보내셔서 우리 외통위 방문단의 방문 일정을 아주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여파와 경제위기 해결책 그리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미 간의 현안 그리고 FTA 비준 문제를 포함한 경제 문제, 이러한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남북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하루 동안에 군과 외무성과 적십자사를 총동원해서 군사분계선의 육로 통행을 제한하고 차단한다, 핵 시료 채취를 거부한다, 판문점 적십자 대표 철수, 그리고 남북 직통 전화 단절, 이런 여러 가지 대남 조치들을 한꺼번에 쏟아 냈습니다. 남북관계가 중대한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관계는 우리 통일부의 소관입니다마는 이러한 북한의 조치의 배경과 또 이것이 향후 있을 6자회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북미관계 개선의 방향, 이러한 점들을 우리 외교통상부장관께서 오늘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FTA 비준동의안 문제, 또 오늘 장관의 사전 설명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진하 간사님.

○黃震夏 委員 한나라당 측 간사 황진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어제 공청회 결과를 요약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추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희도 그것은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정청 TF라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희 여당을 중심으로 한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보완대책의 수정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장관을 포함한 정부에서는 농업지도자들을 만나서 수렴을 이미 했고 또 계속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당에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대책은 계속해서 보완을 시켜 갈 것이고 또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 집행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집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번에 송민순 위원께서 그 예산 3800억이 한미 양국이 전부 다 비준이 끝나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 쪽에서 우리 국회에서만 통과가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집행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준동의안은 계속적으로 보강을 시키지만 또 비준동의 절차는 함께 동시에 가야 한다 이런 것을 어제 공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협상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온 분 중에서 재협상을 분명히 미측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한국 국민들의 정서가 미측 요구만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일부 미흡하다는 것은 가만히 있을 것이냐, 특히 농업 분야를 포함해서 미흡된 분야를 우리도 같이 재협상하자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국민정서가 그렇지 않으면 재협상이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말이지요. 그런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재협상 얘기 때문에 FTA는 기본합의된 것은 제대로 보완도 되지 못하고 재협상도 안 된 가운데 결국 폐기되는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의 얘기도 계속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정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국민 정서라든지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면 그게 제한적이고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FTA에 대한 재협상 문제가 FTA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도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전문가들과의 우리가 질의 문답하는 중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FTA를 우리가 여야 간에 토의할 수 있는 장은 열어놓고 여야 간에 같이 미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와서 그것에 더 추가토의를 하면서 우리가 비준동의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게 좋다. 우리가 상정도 안 해 놓고 미국 갔다 와서 하자는 얘기 자체는 결국 미국 눈치 보고 와서 상정한다는 얘기, 그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야당 측에다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완대책이 강구된 것은 지금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반영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완대책을 보강시키는 것은 계속 하고 비준동의안은 상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정을 해 놓고 미국 가서 전체 분위기를 보고 와서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토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결론을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조와 참여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송민순 위원님.

○송민순 위원 지금 아마 외교부가 세계 경제위기 대응이라든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새로 들어온 데 따른 대북정책, FTA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노고가 많을 텐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 이것에 관해서 저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적 고려 이런 것 때문에 한미 FTA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진을 해 왔던 경우입니다, 추진해 온 사람인데 지금 국회에 와서도 이것 비준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쟁점은 지금 이 시점에서 FTA를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는 것이 FTA를 진정으로 발효시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FTA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찬반의 논쟁이 아니고 이 시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지금 논하고 있기 때문에 논점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황진하 위원께서 상정을 해 두자 이렇게 하는데 미국도 잘 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한 국론의 분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상정을 하기 전에 여야 간에 이렇게 좀 조율해서 여기서 좋은 진정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하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상정을 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논란만 많이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의회에 가서 논란이 되기 전에 의회 쪽에서 먼저 보내지

마라, 의회 쪽에서 사전에 좀 논의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먼저 FTA를 기존 합의대로 비준을 하는 것은 미국 보고 기존의 합의문대로 받든지 말든지, 미국이 그대로 받든지 말든지 하라 하는 그러한 신호를 보내는 건데 우리가 지금 비준을 했을 때 미국도 그 문안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대로 비준을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말이지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 것을 미국이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면 지금 비준하는 것 저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적극 지지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비준하면, 금년은 이미 미국에서도 끝났지요. 미국은 끝났고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 현재의 문안대로 미국이 그대로 비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찬성을 다 받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외교부장관에게, 지금 통상교섭본부장 오셨지요?

○위원장 박진 송민순 위원님,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질의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그래서 제가 요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 버리면 미국의 전체적인 사정을 봐서 상호 조정해서 이것을 타결시켜 나갈 여지를 봉쇄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준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정을 보면 미국이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수정을 요구해 올 그러한 전망이 누구든지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 경우에 미국의 수정을 우리가 거부하면 FTA 끝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국회까지 다 비준을 했는데 미국에서 다시 수정을 요구를 해 와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 국회 체면은 뭐고 나라 체면은 뭐고 그다음에 국론분열하고 한미 관계도 굉장히 악화될 겁니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당·야당 초월해서 FTA를 살리겠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좀 조기 비준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것을 다루고 있지도 않은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때 국민들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러한 보완대책을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24개 정도의 부수법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행법안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검토를 하면, 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미국행정부가 의회에 이 법안을 제출할 시점이 돼서 우리가 먼저 비준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만반의 상황에 다 대비를 해 나가자는 것이지, 그런 점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장관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란 외교장관회담 때문에 11시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아껴서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님.

○박선영 위원 FTA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더 논의할 수도 있고 우리끼리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장관께서 한·이란 외무장관회담을 위해서 떠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외교통상부 관련해서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북한이 12월부터 군사분계선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차단하겠다고 했고 또 어제부터 나온 보도를 보면 북핵 검증의 핵심인 시료채취 합의 여부를 둘러싸고 북한하고 미국 간에 마치 또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외무장관이나 또는 통일부장관 명의로 전화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지금 속보들이 뜨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실 예정인지 그리고 북한의 핵시료 채취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장관 떠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잘 알겠습니다.

문학진 간사님.

○문학진 위원 한미 FTA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께, 간사님께서 상정을 해 놓고 미국 가서 상황 봐도 되지 않느냐, 빨리 상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저희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듯이 지금 한미 FTA 문제는 방금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많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

가장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중요시 해야 할 점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국회가 한미 FTA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진정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좀 유감스러운 것은 평소에 참으로 존경해 마지 않는 황진하 간사께서 미국 가는 것을 무슨 미국 눈치보러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유감스럽지요. 왜, 미국 눈치를 뭐하려고 봅니까?

우리가 미국을 가기로 한 것은 직권상정을 박진 위원장께서 안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정을 하고 미국 가서 보자 그래서 그런 식이면 나는 미국 할애비라도 못 간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직권상정을 안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미국을 같이 갈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가서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 전반적으로 상황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정권교체도 됐고 그다음에 미증유의 금융위기 속에 미국이 빠져 있고 이게 한미 FTA하고 다 직결되는 그런 사안들이잖아요. 가서 미국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 오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직접 보고 오자는 그런 취지이지 미국 눈치를 무엇 때문에 봅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짓는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 한미 FTA 비준안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언제 처리를 하는 게 정말 우리 국익에 맞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 마련하자고 우리가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 내에서도 지난번 저희 의원들 워크숍을 통해서 당 내에 긴급히 TF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두를 일이 절대 아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대비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자, 그러면……

○송영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송영선 위원 예.

외통위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떤 당들은 국민들의 지지 확보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하자 했습니다.

'좀 서두를 것은 없다', 서두를 것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서두르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서두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게 절대적으로 더 옳다고 얘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통위 전체에서 공청회를 하자 해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자 해 놓고 밖에서 사람을 불러 놓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 쪽이 과연 정말 진지하게 토론할 생각이 있는 건지, 과연 진지하게 FTA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같이 머리를 조아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고민하자는 건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진 예.

○정진석 위원 장관 보고부터 듣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FTA는 나중에 논의하고……

○위원장 박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장관 보고부터 듣고,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고요.

○위원장 박진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중단을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아니오, 송영선 위원 발언에 사실관계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학진 위원 전 원래 간단히 하니까요.

한미 FTA 공청회를 외통위에서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그게 애시당초에 한나라당 입장이 17일 이전 비준동의안 외통위 상정이었잖아요. 그 일정에 맞추어서 17일 이전에 공청회를 하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비준동의안 상정 이것은 맞지 않다이기 때문에 공청회도 필요없다는 게 우리 애시당초의 입장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송영선 위원께서 우리가 합의했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선 위원 저도 답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진 됐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FTA 비준동의안 문제는……

○구상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진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FTA 비준동의안 문제는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서 합의 상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미국 방문 전에 합의 상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우리 간사님들께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장을 열어 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안 나면 이 FTA 합의 상정 여부에 관한 논의는 17일의 예산안 의결, 법률안 상정 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농수산위에서 답변이 우리 상임위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농수산위에서 오는 보완대책에 대한 답변을 보고 우리 간사님들과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여기서 중단하고, 우리 장관이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나온 문제, FTA 문제, 또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외교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먼저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미 FTA는 이미 작년 6월 30일 우리가 서명을 끝냈고 지금 벌써 거의 1년 반이 가까워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7대 국회에서 특위에서 24번에 걸쳐서 아주 심층적인 논의를 했고 또 14번에 걸쳐서 우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공청회도 4번이나 했고 17대 국회에서 끝냈어야, 우리가 비준을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를 보는 시각이 좀 더 큰 시각으로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맞느냐, 외교부가 한미 FTA를 추진한 배경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경제적인 여건, 중국의 급속한 부상 또 선진국의 경제적인 상황 또 우리의 입장에서 한국을 FTA 허브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만이 주변 4개국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하고—FTA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미국·일본, 일본·중국, 미국·중국, 전부 다 FTA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FTA 허브로서 동시 다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각국과 FTA를 체결하자 하는 보다 큰 국가적인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의 경제 앞길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자, 말자' 하는 차원도 물론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크게 과연 이것이 우리 국익에 맞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 6월 30일날 서명한 이것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하고, 그다음부터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 측에 이것도 미국의 국익에 맞는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비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재협상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이것을 연계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에 자칫하면 오히려 우리가 재협상을 인바이트(invite)하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접어 두고 과연 이것이 우리 국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가장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북한은 하루 동안 3건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12시경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서 12월 1일부터 개성을 통과하는 군사분계선의 모든 육로 통행을 억제하고 필요하면 차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5시 47분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걸 통해서 북핵 검증 관련 기존의 우리의 이해 상황과 반대되는 담화를 얘기했고, 또 오후 8시 41분에는 북한적십자 중앙위원회 성명을 통해서 판문점 경유 모든 적십자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장성급 개성공단 관련하고 적십자 문제는 지금 각 관계부처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서 금일 중으로 북한 측에 우리 입장을 통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핵 검증 관련해 가지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저녁 우리 외교부 당국자 논평을 통해서 북핵 검증과 관련한 미북 간 합의 내용에 대한 북

한 측의 입장 발표는 그 내용이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 평가하며 이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나아가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정부는 검증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이 6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해결돼서 6자회담 과정이 진전돼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다 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서 북핵 문제, 6자회담 관련한 북한 측 대변인 담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석 중입니다마는 한 가지 여기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것은 북한 측의 그러한 입장이 과연 부시 행정부, 나아가 오바마 행정부와도 상황 악화도 불사하면서 검증 관련 양보 불가 입장을 명백히 전달한 거냐 아니면 차기 6자회담에서 검증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벼랑 끝 전술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 간 또 한중 간, 미중 간에 접촉을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숙 6자회담 수석대표가 힐 차관보하고 전화로 1차 협의를 했고 또 미국도 북한하고 접촉을 통해서 북한의 저의를 확인할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담화에서도 불능화를 중단한다거나 역행한다든가 이러한 점을 위협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서 북한도 6자회담 자체를 곧바로 와해시킬 의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자회담이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것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면서 또 그 담화 내용에서 경제·에너지 지원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모두 감안해 가지고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하고 또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접촉을 다시 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증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0월 2일날 힐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서 김계관 부상과 다 합의한 내용입니다. 이미 합의한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미측에 지적을 했고 미측 스스로도 그러한 모호성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일본도 자기 입장을 표시했고 또 미중 간에 그동안에 협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단계에서 너무 우리가 결론을 빨리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북한의 진의를 파악함과 동시에 주변 관계국과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개성 통행 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통지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중에 북측 단장 앞으로 우리측 카운터파트가 통지문을 보내서 우리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에 통보한 직후에 관계부처에서 언론에 공표를 할 것이지만 북한이 지금 관심을 보인 삐라 살포 문제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발표를 하고 그동안에 남북한 간에 보류가 되었던 개성 관련 3통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에서 정식 발표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적십자가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하면서 그 이유로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자기네들의 불만을 표시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박 정부의 입장이 지난 정부와 변화를 두었습니다.

우리가 금년 봄에 인권위원회 입장에서 찬성을 했고, 요번에 EU가 중심으로 이달 중에 곧 표결이 있을 UN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공동제안국으로 한 50여 개국이 참여했고, 이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문제로서 우리가 다른 정치적인 사안하고 구별해 가지고 인권의 잣대로써 우리가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을 표시할 거라는 점은 우리도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문제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또 국제사회와 협조를 해 나가면서 다뤄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제안설명하고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위원님들 꼭 질의하실 게 있으면 1분 내로 아주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님!

○남경필 위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북한의 의도 파악·분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북한이 단순히 블러핑(bluffing)하는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실행을 했던 사례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것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것 당연한 말씀인데, 다만 장관님, 우리가 그동안 구체적인 회담 제의, 공식적인 회담 제의, 예를 들면 장관급회담 또는 실무회담 이런 제의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수차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남경필 위원 공식적인……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공식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서 남북 장관급 외무장관회담도 제의를 했고 또 금강산 관련해 가지고는 수차로 당국자 간의 회담을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까지도……

○남경필 위원 직접도 하시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랬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런데 반응이 전혀 없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적극적인 제안, 구체적인 공식적인 제안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장관께서 또 대통령께서 내일부터 순방을 가시기 때문에 상당히 공백이 있는데, 가시기 전에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 제안을 해서 북한이 진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식적인 회담 석상에서 토론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안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당국자 회담을 개최해 가지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진정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입장은 수차에 걸쳐서 북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또 전달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이미경 위원님!

○이미경 위원 장관님은 이번에 북한의 이러한 발언이나 이러한 것이 그다지 큰 문제가 될 것 없다, 좀더 기다려 보고 시간을 끄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북한과의 여러 가지, 특히 핵문제에 관련해서 또 남북대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난 1991년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17년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북한은 항상 행동에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잘 음미하고 또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어떤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그만 크라이시스(crisis)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또 일보 진전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해 왔고, 항상 정부가 바뀌는 경우에는 또 북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전략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행동을 취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바짝 뒤따라가면서, 롤러코스터 뒷자리에 앉아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분석을 해 가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난 뒤에 이명박 대통령의 '시간 끄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유 장관님 생각하고 같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요.

오늘 북한에 의견서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 속에 삐라 살포, 개성 3통 문제 이런 등등을 다룬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셨지마는 6·15, 10·4 선언에 대해서도 말로만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삐라 살포 같은 것은 입장 바꿔 놓으면 굉장히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합의했던 상호 비방하지 않는다 하

는 것을 민간이 했다고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제해 달라고 얘기했다……

이런 것이 현재 남북 간의 관계를 긴장스럽게 만들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정부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제가 통일부장관께 질의했더니 통일부에서는 '삐라 살포와 뜻이 같지 않다' 이런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 다루느냐고 질의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남북 관계만이 아니고 6자회담하고 다 연관되는 것인데 외통부장관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이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안보조정회의에서 수차 토의를 했고, 대북 삐라를 현재 내용대로 살포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일부에서 그것을 NGO 단체와 직접 접촉을 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중단하겠다는 NGO도 있었고 일부 NGO는 야밤에 몰래 해상에서 하는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러한 입장을……

○이미경 위원 그것이 전 정부에서는 없었는데 왜 정부가 바뀌고 나서는 이렇게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와중에 미국은 지금 '중유 5만t 선적을 마쳤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지금 북한의 이러한 주장, 미국하고 이러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다소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유 5만t은 보내고……

지금 미국하고 우리 정부 간에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실시간으로 한미 간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지금 불능화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제지원은 우리도 맞춰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5만t 보내는 것을 우리 정부는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왜냐하면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동 대행동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

○이미경 위원 불능화 조치, 지금 6자회담에서도 알고 있고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것하고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불능화 조치는 지난번……

○이미경 위원 다른 내용이지요.

○위원장 박진 이미경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십시오.

1분씩 드렸는데 시간을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세 분 남아 계시고 장관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경 위원 핵 시료채취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정옥임 위원님, 홍정욱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이렇게 세 분 1분씩만 받겠습니다.

정옥임 위원님!

○鄭玉任 委員 지금 북한의 의도를 파악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행태에 대해서는 장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미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북한의 이런 행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이 양자 대화도 할 수 있다라는 오바마 당선자의 어떤 신호를 북한이 잘못 받아들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오바마 당선자 측과의 조율은, 물론 현 정부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안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오바마 당선자 측의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라든가 아시아, 이 핵문제를 담당할 사람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인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했을 때 오바마 당선자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면 '테러지원국을 해제한 부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한 대응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이것 쿼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모든 6자회담 참가국을 선도해서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최근 철회한 제재를 재개하면서 새로운 제재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연 이러한 오바마 측의 성명을 오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곧 있게 될 6자회담에서 전술적인 벼랑 끝 전술에 대해서는 침착하게 한미 간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 시간 때문에 질의를 한꺼번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장관이 답변하신 후에 제안설명하고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홍정욱 위원님!

○홍정욱 위원 북한 전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는 장관님 의견에 백번 동의하고 침착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서 이것이 부시 행정부의 임기 말 조급증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부합된 결과다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떠나서 바로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정권은 정권 말기에 조금 쫓긴 감이 있다. 임기가 다되어 가는데 다음 정권에 넘기기 위해 진전을 좀 시켜 놓기 위한 전략이 있었다고 본다.' 대통령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테러지원국 해제가 일정 정도 성급했음을 그리고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한미 공조가 아니라 북·미 대화의 결과를 우리가 결국 통보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방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료채취에 대해서도 대정부질문 시 스스로 시인하셨고, 어제 공식적으로 북한이 거부를 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테러지원국 해제했을 때 이것이 불완전한 검증을 용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또 부인하셨어요.

장관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부화뇌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왜 국민과 국회를 호도하십니까? '테러지원국 해제가 불완전한 검증을 용인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 또 북·미 주도 협상이라 우리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더욱 잘해 나가겠다.' 왜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시고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잘된 결과다. 우리 목소리가 다 들어갔다.' 이런 말을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으시고 저희를 불안하게 하십니까?

○위원장 박진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상수 위원님!

○安商守 委員 북한의 이번 행태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만일 새로 들어서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과 별도로 대북 채널을 가동하기를 북한이 바라고, 그러니까 직접대화를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6자회담의 근본적 틀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윤상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윤상현 위원 장관님, 지난번 대정부질문 때 제가 북·미 간에 비공개 잠정합의문이 있다, 비공개 잠정합의문에는 시료채취가 빠져 있다, 그렇지만 미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시료채취가 들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시료채취가 빠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결국 비공개 잠정합의문에 시료채취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지금까지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볼 때 당연히 북한이 시료채취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셨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시료채취를 거부함으로써 지금까지 핵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 아닙니까? 한마디로 북한은 핵 검증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장관님께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비공개 잠정합의문하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이해사항(Understandings on Verification)하고의 차이가 단지 샘플링 하나 빠진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 마지막으로 송영선 위원님!

○송영선 위원 아까 장관님께서 'FTA에서 재협

상이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 쓰면 재협상을 인바이트하는 것과 같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저도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외교통상부에서는 앞으로 절대 스스로 통미봉남이라는 용어조차도 쓰지 마십시오. 누가 통미봉남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계속 통미봉남이라는 용어를 써요. 통미봉남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한미 동맹보다도 북·미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교통상부가 한 일 없습니다. 미국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신뢰는 북·미 관계의 진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계속 되풀이해 주십시오.

또 이근 국장이 성김을 만나고 나서 '이야기 잘됐다. 6자회담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근거로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6자회담을 망가뜨리거나 뭐 할 취지는 없다. 의도는 없다, 그것이 유일한 생명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또 일관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도를 분석한다, 그것도 그렇게 미룰 것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6자회담 끌어 나갈 북한이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6자회담에서 좀더 많은 것을 얻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시지 말고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하다, 6자회담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끌어 간다 이 입장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진 장관,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님, 좋은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정욱 위원님, 윤상현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비공개 잠정합의문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 10월 2일 미·북 간에 합의한 문안, 6자회담이 개최되면 6자 간에 토의해서 합의를 봐야 하는 문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는 너무 모호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미국 정부가 다시 북한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북 간의 양해사항, 소위 토의 기록 같은 것을 정리해서 그 모호성을 해명하는 별도의 작업을 해 왔고 그것을 6자회담이 개최가 되면 어떻게 문서화하는가 하는 논의 과정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시한 것입니다.

별도의 비공개 잠정합의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아직 6자 간에 합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문서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북한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한미 간 또 관계국 간에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핵시설 또는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해서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문제는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로 봐 왔고, 북한은 검증은 전혀 논의되지 않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과정이나 오바마 측에서 얘기한 것 또 검증 문제는 신고에 불가분의 관계로 이미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넘어야 할, 넘지 않으면 안 될 또 북한의 핵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시료채취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관계국 간에 협의해 나갈 입장입니다.

○위원장 박진 장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오늘 한·이란 외교장관회담을 끝내고 3시에 국회로 복귀하시기 때문에 오전에는 장관을 대신해서 신각수 제2차관이 자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장관께 꼭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오후로 시간을 바꾸셔도 됩니다.

오전에 질의하실 분들은 오전에 해 주시고 오후에 하실 분들은 입법조사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제안설명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심의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외교통상부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심의에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2009년도 우리 외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외교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 그리고 경제선진화와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외교,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외교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와 국민의 편의증진을 의한 외교 등 다섯 가지 외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외교 분야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은 지난 10월 미·북 간 검증조치 합의 결과에 따라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재개하였고 현재 6자회담 참가국 간에는 차기 6자회담 개최 또 검증의정서 채택, 불능화와 경제·에너지 지원 완료 등 비핵화 2단계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핵 문제에 있어 긴밀히 유지되어 온 한미 공조가 차기 미국 행정부와도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 강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한반도 주변 4국과의 관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출범하는 해로서 차기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 발전과 원활한 정책공조를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핵 문제와 대북정책 등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동맹 재조정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 현안들의 원만하고 호혜적인 해결을 통해 양국 간 안보협력의 공고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비자면제 프로그램과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의 원만한 시행 등 양국 간 교류의 폭을 계속 넓혀 나가면서 여타 분야에 대한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독도 문제, 역사인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경제·문화·인적 교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와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을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국과는 금년 5월 대통령 방중 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8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계기에 전략적 협력 관계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34개 항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러시아와는 지난 9월 대통령 방러를 통해서 격상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서캄차카 해상광구 공동개발, 러시아 극동 지역 한국 전용 항구 개발, 우주첨단과학기술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 분야입니다.

외교부는 범아시아권에 대한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외교지평을 확대하여 EU, 중동, 중남미, 아프라카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를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아세안과의 신아시아 협력외교 추진을 위해서 연내 한·아세안센터를 서울에 설립하고 내년 6월 초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의 제2 교역상대인 EU와도 연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까지 지난 96년까지 체결된 한·EU 기본협정의 개정을 통해서 우리와 EU 관계의 격상을 추진하는 등 대유럽 외교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선진화와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외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명된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와 함께 진행 중인 한·EU FTA 협상의 금년 내 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거대경제권뿐만 아니고 걸프협력이사회, 호주 등 자원부국과의 FTA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국가 간 에너지 확보 경쟁의 심화 속에서 사용 에너지의 대부분

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취약한 에너지 안보 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협력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과 보급, 온실가스 감축 기술 등에 관한 정보와 정책사례들을 주요국들로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체제 형성을 위한……

○위원장 박진 장관님, 잠깐만요.

정진석 위원님!

○정진석 위원 장관님 말씀 도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제안설명 여러 번 중복된 내용들인데 이쯤 듣고 바로 정책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진 장관님, 마지막 마무리만 해 주시고 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외교를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PKO라든가 ODA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재외국민 보호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외교 분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해외 안전여행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또 금년 11월 17일부터 개시되는 미국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또한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도 국내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조만간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효과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은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7% 증가한 1조 25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외교통상부 예산안 개요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또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은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각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장관 이석하시고, 장관을 대신해서 신각수 제2차관께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장관님 가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남경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위원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식제안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통일부에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의 말씀이라든지 또 개원연설이라든지 우리 장관님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우리가 판문점 연락소라든지 전통문이라든지 전화통지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회담제의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오후에……

○남경필 위원 예, 그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위원장 박진 그러면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임재홍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요점만 보고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기획조정실장 임재홍 2009년도 외교통상부 예산(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특징이 국제기금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에너지 협력외교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영유권 공고화 및 해양경계 획정 등 국정과제와 외교현안 관련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재외공관 신설, 재외공관 운영 현실화 및 환율 상승 등 특이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사업별 내역입니다.

5페이지에서부터 6페이지까지 세출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프로그램·단위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외교통상부 예산은 정상외교, 다자관계협력, 국제기구분담금, 지역외교,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여권업무선진화, 경제통상외교, 개도국원조,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재외공관운영, 외교통상행정지원, 차입금원금상환 등 총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별 예산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 프로그램별 내역입니다.

정상외교 프로그램은 의전장실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자관계협력 예산입니다.

다자관계협력 프로그램은 국제기구정책관실, 정책기획관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조약정책관실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입니다.

2009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액은 2008년 대비 10.9% 증가한 2503억 9200만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예산편성 기준환율이 2008년도에 1달러당 920원에서 2009년도에는 1달러당 1100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지역외교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지역외교 프로그램은 6개 지역국 주요 사업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31억 73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19.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예산입니다.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예산은, 문화외교가 대변인실 사업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13억 84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24.9%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계속사업인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사업 2억 2500만 원, 외교홍보역량강화 사업 예산에 1억 4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2억 25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8.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에 4억 100만 원을 증액하고 재외동포재단 출연금을 11억 8300만 원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권업무선진화 예산입니다.

2009년도 여권업무선진화 프로그램 예산액은 703억 39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8%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는 여권사진 전사시스템 확대 예산을 25억 5000만 원 감액하는 등 2개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제통상외교 예산입니다.

경제통상외교 예산은 통상교섭본부 사업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72억 22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1.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개도국원조 예산입니다.

개도국원조 예산은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으로 2009년도 예산은 3172억 원으로 2008년 대비 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예산입니다.

동 예산은 외교안보연구원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은 63억 49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2.4% 감액되었습니다.

(박진 위원장,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25페이지, 재외공관 운영 예산입니다.

재외공관 운영 예산은 기획조정실 사업 예산입니다. 154개 재외공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 2009년도 예산은 3836억 94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12.7% 증액되었습니다.

재외공관 신설, 재외공관 운영 현실화 및 환율 상승을 반영하여 재외공관 인건비는 135억 500만 원, 기본경비는 30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외공관 국유화 이자상환 예산은 소폭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외교통상 행정지원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1551억 360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8.1%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예산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232억 42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18.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은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국유화를 위한 예산으로 2009년 예산은 2008년 대비 32.5% 증가하여 34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09년 신규 사업으로 주남아공대사관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계속사업으로 8개 공관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나오셔서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역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입니다.

2009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배포해드린 자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기본방향 설명은 생략하고, 3쪽의 기금운용계획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824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624억 7800만 원과 여유자금회수 2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수익에 따른 재산수입 131억 원,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에 의한 경상이전수입 494억 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000만 원입니다. 여유자금회수는 금융상품으로 예치된 국제교류기금 중 내년도에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하는 것으로서 2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문화홍보외교 및 국제교류는 한국학기반확대, 한국전문가육성, 인적교류, 문화교류, 출판자료지원 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438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재단의 순수 경상사업비로서 정부의 에너지자원외교 확보를 위한 지역별 상설 협력체 활용 사업비 40억 원 등 외교부에서 요청한 15개 사업 99억 원을 포함해서 08년도 대비 23.6%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외동포 보호 및 지원 사업비는 재외동포재단에 지원되는 것으로서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08년도 200억 원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외교통상 행정지원 항목인 재단의 기금운영비는 90억 7900만 원으로서 08년도 대비 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운용은 100억 7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수입계획의 여유자금회수 200억 원 중에서 사업비로 충당하고 남은 것을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될 잔액금액입니다.

2009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의 상세한 사업별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4~7쪽까지, 또 별책으로 배포해드린 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국제교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이사장님, 잠깐요.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시에 UCLA 한국학, 기억나시지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예, 김동석……

○구상찬 위원 제가 이사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외교부나 다른 산하단체 직원들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 놓고 부탁을 하고 확인을 했으면 반드시 콜백(callback)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UCLA 한국학, 한국음악학과 폐과 문제에 대해서 기금은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이사장께서 답변에서 '차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왔어요. 그거 간부들 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든지 지적을 하면 우리가 다시 지적하지 않더라도 그건 다시 꼭,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그때 이사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가 안 왔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즉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상찬 위원 바쁘시면 서면보고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구상찬 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또 요청하신 사항은 확실하게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주셔야 그다음 회의가 됐을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묻거나 보완하거나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한 반응을 보이실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 보고는 정부 측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3쪽의 6자회담 대북지원 의장국 활동 강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자회담 대북지원 의장국 활동 강화 사업은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총괄·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6자회담 차원의 대북지원을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무국 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은 총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은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시에도 제기된 사항으로 6자회담 대북지원 의장국으로서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6자회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장국 역할 강화의 내용은 궁극적으로는 관련 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도 6자회담 틀 내에서 6자회담 사무국 설립 구상을 제기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못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를 제외한 6자회담 당사자인 여타 5개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의장국 역할 강화를 위한 사무국 형태의 조직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국제기구화하려는 계획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것인바,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국의 지원과 협조를 얻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북 관련 업무는 외교통상부뿐만 아니라 통일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 및 의견 조율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정부의 통상적인 대북지원 창구는 통일부로 일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에 대한 단일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동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면서도 통일부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지원과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대체에너지 지원, 경수로 건설 등 통일부 사업과 보다 밀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국정감사 및 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정부 내부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부처 간 협조 및 조율 방식에 대한 검토 없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북지원에 대한 부처 간 업무 협조 미비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 부처와의 체계적인 협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의 해외긴급구호지원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긴급구호지원 사업은 해외긴급구호 과정에서 민간 종사자의 피해를 지원하고 선진국에서의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지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통상외교 프로그램 내에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성격은 경제통상외교 프로그램의 성격과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동 사업을 다른 프로그램 내로 이전할 것을 고려해야 하며 선진국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지원액이 1억 원에 불과한 것은 예산액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서 향후 대규모의 예비비 사용으로 인하여 건전한 예산 집행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액 및 민간 종사자 피해지원 보상액을 예산항목의 해외이전 및 보상금 항목이 아닌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설정하였는바,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저해한다 할 것이므로 각 사업 내용의 성격에 맞게 예산의 항목을 재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1쪽, WEST 양해각서·워킹홀리데이 협정 이행 예산 미반영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의 약자인 WEST 프로그램은 미국이 기존의 인턴 프로그램인 Work & Travel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새로이 도입한 제도로서 지난 2008년 9월 22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 이행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부터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대학재학생 및 최근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 여행 등 총 18개

월간 연수와 취업을 병행하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외교통상부는 WEST 프로그램과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할 계획하에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사업 내에 WEST 양해각서·워킹홀리데이 협정 이행의 사업내용을 신설하여 2009년도 예산으로 30억 5700만 원을 확보하도록 추진하였으나, WEST 양해각서가 최근에 체결되고 구체적 이행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지체되어 동 예산안이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WEST 양해각서·워킹홀리데이 협정 이행 사업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미 양국 간 교육·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보다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인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고비용 어학연수를 대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금년 내로 인턴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인턴 대상자를 모집하여 1000명을 선발할 계획인바 이는 다소 성급한 사업추진계획이라 할 것이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지원단을 내실 있게 구성하고 WEST 프로그램의 수혜대상자가 공정하게 선발되도록 하여 WEST 프로그램이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끝으로 에너지 협력외교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에너지 협력외교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신규사업으로서, 2009년도 예산안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160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효과적인 에너지 협력외교 추진을 위하여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및 개발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다각적인 에너지 외교를 지향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협력외교 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다른 실·국의 사업과 그 목적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본래 자원·에너지 외교 관련 업무는 기획조정실이 아니라 아중동국, 중남미국 등 각 지역 담당국과 국제경제국이 담당할 업무라 할 것이므로 지역외교 교류협력 강화나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강화 사업 내에서 동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여 이러한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외교통상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160억 43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집행 과정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진석 위원 수석전문위원께 몇 가지 좀……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정진석 위원 12쪽에 말이지요, WEST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예.

○정진석 위원 금년 내로 인턴추진지원단 구성하고 대상자 선발하는 게 왜 성급한 사업추진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그게 내년에 시행될 사업인데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이것을 서둘러 할 것이 아니라 시간적 여유를 갖고 내실 있게 시행하자 하는 그런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정진석 위원 나는 이런 것 빨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 구희권 물론입니다. 물론 하는데 서두르지는 말아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교부장관이 다른 행사 때문에 출타를 했는데 오후 3시가 돼야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토론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순서에서 지금 외교부장관이 오시기 전에라도 계속 질의하겠다 하는 분들은 오전에 시간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15시 이후에 질의할 분들은 그 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래대로 원칙으로 하고 한 분당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질의 순서는 정진석 위원께서 대체토론하시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정진석 위원 한나라당 정진석입니다.

최근에 외국 언론매체들의 국내 경제상황과 관련된 악의적인 보도가 잇따라서 이것이 매우 심리적인 영향에 끼친 그런 악폐를 남긴 사례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당국에서 해명성 설명을 언론 상대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다소 사후약방문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우리 외교통상부의 홍보 시스템, 대언론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교통상부, 저도 86·87·88년 그 무렵에 외무부 출입을 한 2년 동안 했었는데 외교부의 대언론 브리핑 시스템이라는 게 거의가 국내 언론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외교활동을 해서 했다 이런 성과 위주의, 물론 국민들로 하여금 외교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는데 당연히 소상한 브리핑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외신들과의 어떤 소통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미국의 예를 그대로 대비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매일 12시에 눈(noon) 브리핑 같은 것을 365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외교통상부는 현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외신기자들에게 가끔씩 그렇게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외신 브리핑을 좀 정례화하고 내실화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경제부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응을 잘 못하는 게 경제부처는 당장 일단 외국어가 좀 어려우니까 겁들을 많이 내고 하지만 사실 외교통상부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는 없으니까 차제에 이런 것을 좀 일원화해 가지고 대외신, 대외언론 브리핑제도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외교 홍보역량 강화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정진석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사실은 대내 언론 중심의 대변인실 개편 예산이에요. 저는 대국내 언론, 본 위원이 이런 발언하는 것 사실 언론사에서 보면 괘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좀 미흡하다고 보는 관점은 대외 언론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례적으로 영어로 소상하게 브리핑을 하는 것입니다, 커렌트 이슈(current issue)에 대해서. 거기에는 대외 언론들도 참여할 수 있고 국내 언론도 참여할 수 있고 해서, 이런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최근에 우리가 부닥쳤던 각종 외신들의, 해외 언론들의 대 한국 때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체질을 갖추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또 제가 해외 감사를 통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주요 포스트 재외공관에는 공보기능이 반드시 작동돼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뉴욕 유엔대표부나 워싱턴 주미대사관 같은 경우에, 지금 공보업무를 정무팀들이 대신하는 그런 어떤 현실인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보처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문광부하고 별도로 협의를 가져 가지고, 이 예산을 외교부 예산으로 반영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그런 격변기에 더더욱 공보기능이 강화돼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는 때 이것이 브레이크가 되고 공동화가 되면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 가지고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절대적으로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우선 정진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 금융위기 관련해서 외국, 특히 영국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과 미국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라든지 또는 부정적인 기사가 게재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 이미지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크게 외신에서 우리 경제 기사를 다루는 소스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나와 있는 특파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당수의 특파원들이 동경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발 기사가 많고……

○정진석 위원 장황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는

데, 본 위원 지적이 맞아요. 맞고,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하여튼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시간이 없어요. 본 위원 질의 중심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하여튼 대외 언론 브리핑제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내 대변인실 제도개선에 대한 예산만 강화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을 메워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이것은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은 추가로 더 심의를 하시도록 하십시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위원님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우리 임성준 이사장께……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예.

○정진석 위원 여기 보니까 국제교류기금으로 민간단체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런데 중국 관계 보니까 한중친선협회는 내년에 1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21세기 한중교류협회는 2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저희가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수년 전에 외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가지고……

○委員長代理 黃震夏 정리해 주세요.

○정진석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예.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이관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외교부에서 하던 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제가 무슨 한중친선협회를 특별히 편들고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최근에 베이징대 출신 학생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명박학 강좌라 그래 가지고 한중친선협회가 주관한 세미나가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이 좀 경화된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민간단체의 활동이 강화되면 사실 A트랙으로 진행되는 공식적인 외교활동 플러스 B트랙이라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별을 두지 말고 제가 볼 때 평가를 좀 엄정하게 하셔 가지고 재정 배분에 효율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송영선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 전자여권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17일부터 지금 전자여권 통용이 되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전자여권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시행 중인데…… 11월 17일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11월 17일부터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이 됩니다.

○송영선 위원 그러니까 미국 비자……

제가 지적을 했을 때 분명히 외교통상부에서 상당한 부분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지금 무용화할 수는 없고 상당히 장점도 있고 또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조금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자 이랬더니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 보안성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했는데, 2009년 예산 잡아 놓은 데 보니까 그 보안성 강화에 대한 연구사업비가 전혀 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송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2009년 예산안에, 전자여권 보안성 확보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쪽 입장은 제가 말을 막아서가 아니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발급 이전에 개발과정에

서 보안성 검증을 거쳤다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보안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안성 검증을 마쳤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문제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서 그 보안성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를 하니까, 차관님께서 지금 제 시간을 먹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아니, 지금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예산에 전자여권 품질개발 명목으로 2억 18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50%를 절약해서 보안성 강화하는 데 저희가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보안성 강화하는 데 지금 1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VWP라는 게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런데 그게 보안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만약에 1억 가지고 보안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러면 그것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물론 한정된 파이 가지고 갈라야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다시 재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편성 문제인데 외교통상부가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라는 게 좋은 거지요. 국회의 사전의결원칙에 예외로 되는 항이니까 위원들하고 싸우지 않고 또 외교라는 것은 생각지 않은 상황이 많이 발발하니까 그럴 수 있다하는 답은 교과서적인 답인데 상당 부분 예비비로 항목을 대체를 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국정 관련 부처에 국정운영에 대한 원칙도 부족하고 전년도 사업평가를 제대로 못 한다라는 능력 부족이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도 예비비 편성이 예상되는 항목이 정상회의하고 총리 순방,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FTA, 해외 긴급구호 지원, 이런 건데 지금 정상회의, 총리 순방은 보면 정말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에너지와 자원외교, 어떤 분은 자원외교 용어 자체가 아주 비굴하고 어쩌고 하는데 자원외교 맞는 얘기입니다. 자원외교를 위해서 방문 횟수가 급증적으로 늘어날 건데 이것도 상당 부분 예비비에 의존할 것이고 또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문제를 보면 지출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5억 5200만 원이라는 게 이것도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 배정인데 그뿐만 아니라 수입대체경비로 사용한다라는 게 지금 여권 발급하고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이 같은 항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끌어다가 여기 쓴다라는 것 자체가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을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비비를 끌어다 쓸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이 쪽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FTA 문제도 똑같습니다. FTA, 진짜 2007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쓰라고 주니까 못 써서 남은 부분 불용 부분이 11% 되니까 그것 때문에 2009년도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FTA 올해보다도 내년에 추진해야 될 국가가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깎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11% 불용이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아서 예산 더 깎였는데 22억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극단적으로 말해서 FTA 하지 말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비비로 끌어다 할 생각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거니까 다른 예산항목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현실적인 금액을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실적인 액수를 책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해외 긴급구호 지원도 의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규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전자여권 보안성 검토 예산으로 1억 하려고 하는 것과 해외 긴급구호 지원으로 2억 붙여 놓은 게 해외 긴급구

호 지원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식이니까 이것도 2억이라는 건, 물론 작년 기준으로 1건밖에 없었으니까 그 정도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적(pirate)의 문제라든가 또 납치 문제라든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또 자연재해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좀 현실적인 사업비로 책정을 재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우선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상외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004년도부터……

○委員長代理 黃震夏 마무리 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영선 위원 제가 차관님의 아주 성실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고, 뒤에 예산안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를 보고 제 얘기가 정말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질의가 3개나 더 있습니다. 오후에 이 질의들을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안 될 경우에는 서면질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송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홍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오바마 진영과 한미 공조의 핵심인 한미 FTA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교감을 시작했느냐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중앙정치나 국제정치에 오바마 당선인이 신인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인만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교감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아까 장관님께서도 아마……

○홍정욱 위원 교감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오바마 외교노선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하는 것이 물론 급선무지만 인맥 확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차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미국 지명위원회가 우리 독도 표기를 뒤늦게나마 수정한 것은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겠지만 양국 간에 긴밀한 채널 가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외통부 예산안 증감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 외교활동비가 지금 129억 원으로 책정돼 있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홍정욱 위원 작년 외교활동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35억 원, 그렇지요? 올해 예산보다 작년이 많았습니다.

외교활동비를 왜 모르세요? 우리 외통부 사람들이 써야 되는 중요한 돈인데.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작년에는 135억 원이었습니다.

○홍재형 위원 그렇지요. 외교활동비가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외교활동비에 대해서는 용도가 그릇된 곳에 쓰인다, 불투명하게 집행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 있지만 반면 외교활동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외교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저희 외교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예산당국에 감액을 하지 말도록 저희가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지금 감액된 결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최근에 도입 논란이 우려되고 있는 중고 아파치 헬기 1대 값이 137억 원입니다. 우리 외통부 전체 외교활동비가 이것에도 못 미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일본 외무성 예산안 보면 잘 아시다시피 친일파, 지일파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을 정도인데 물론 지금 경제위기라고는 하지만 이와 같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외교적인 네트워크 구축, 외교활동, 대단히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투명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교 네트워크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성 어느 정도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내역을 공개하겠다, 이런 전제하에 외교활동비를 상향 조정하는 것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홍 위원님, 다

만 외교활동비 내역을 공개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상대방 국가와 외교를 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접대를 했느냐 이것까지 알자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일정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셔야지 그렇게 계속 고수하시면 계속 깎입니다. 그게 좋으세요? 늘리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국회가 요구하는 투명성 어느 정도 보장하시고 증액 받으세요.

베트남 대사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내년 외교부 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베트남 대사관이라고 되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저희 국유화 사업 가운데 지금 미반영이 된 사업 가운데는 가장 중요합니다.

○홍정욱 위원 우리 국격에 맞는 대사관 시설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입주 시기, 공관 규모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청사 신축 계획안 보면 규모가 2만㎡지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다른 공관들에 비해서 월등히 큽니다. 지나치게 크게 잡은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홍정욱 위원 왜 그렇게 잡으셨어요? 땅이 나왔으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베트남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한 부지 자체는 다른 사업 부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이 되어 있고 그게 한 단위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기가 크게 나왔습니다.

○홍정욱 위원 KOTRA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베트남 부동산시장 분석을 하면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세계적으로 자산 디플레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별 놀라운 일이 아니고 베트남도 예외가 아닌데 지금 무지하게 비싸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격도 1㎡당 1500불이지요, 이게 별로 싼 가격이 아닌데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지금 현재 하노이 시내에서 1㎡당 3000~5000불이고요. 신외교단지 주변에서는 3000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과다책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장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시장가격에 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싸게 책정해서 주는 것이면 시장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저희가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연초에는 소폭 하락했었습니다만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사업이 4년간 4500만 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게 국고채무부담이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홍정욱 위원 저는 예결산소위에서 심의할 때 현지 부동산 경기하고 규모 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평화연구원 누차 지적된 문제인데 예산 7억 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책정하셨고 그리고 애초 민간으로부터 확보하기로 한 50억 원은 아직도 전혀 모금이 되지 않았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지금 모금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래서 200억 원 투입해 놓고 이것 놀릴 수도 없고 아주 울며 겨자 먹기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현재 이자가 연 11억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지고는 인적 경비를 충당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위해서는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홍정욱 위원 이게 민관공동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홍정욱 위원 정부예산은 다 투입되고 있고 민간에서는 약속된 돈 10원 한 푼 안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업 형태가 아주 잘못된 전례를 남기고 민관사업에 대한 신뢰 상실의 큰 요인이 됩니다. 7억 원은 우리가 함부로 지금 예산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향후에 민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이 같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따져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평화연구원에 정부가 투입한 200억 원도 정기예금 5%짜리 이자에 운영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욱 위원 정부가 기금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최적의 자산운용방식인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따져 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정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차손 문제에 대해서 누차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환차손이 발생해도 환차익이 발생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집중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따져 보겠습니다. 재정당국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서 꾸준히 좋은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홍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끝으로 남경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남북관계가 아주 급속하게 경색되고 있는데 아까 장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의지는 있으되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회의 제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화하는 회담 제의를 해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을 차관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바마 미 정부가 앞으로 다자협력 외교노선을 펴 나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통상부 내에 다자협력을 담당할 차관을 한 명 더 두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제 소관 사항이 다자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예, 다자협력과 또 다른 기능도 다 같이 하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것을 다자협력만 별도로 하는 전담 차관을 두고 그다음에 다른 업무를 분할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차관을 한 명 더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물론 기본적으로 정부의 조직에 관련된 문제로서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소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입장이 어떠시냐는 것이지요. 행안부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저희 입장에서는 차관 업무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부처 당 2명의 차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경필 위원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 나가는 것은 또 국회와 정부가 같이 해야 될 일이고요.

예를 들면 행안부와 관련된 협의 문제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정부조직법 제25조 제3항을 개정해서 차관보를 하나 더 두는 방향,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저희가 지금 현재 외교부 조직개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현재 다자외교조약실장을 차관보급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문제도 한 방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경필 위원 적극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자녀 중에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없어요, 제가 요청했더니.

파악을 하십시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리고 이 부모 자녀들에 대해서 일반 학비는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마는 이 장애아의 경우 학교 외 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금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안심하고 외교관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저희도 장애아를 가진 외교관에 대해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경필 위원 아직 실태 파악도 안 되어 있으니까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하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ODA 규모가 너무 낮다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나왔는데, ODA 확대가 이번에도 7% 증가에 그쳤는데 너무 적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저희가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 대비 0.25%까지 증가하는 장기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남경필 위원 0.25%도 사실은 작은 거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0.25%면 아마 지금 현재의 OECD 국가들의 평균지수입니다. 그것도 OECD가 권장하는 0.7%에는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표 연도까지 0.25%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신축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해외동포연구소가 하나도 없었는데 UC 리버사이드 대학에 재미동포연구소 설립하는 사업에 예산 지원하기로 하셨어요. 아주 잘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09년 5억, 2010년 10억, 2011년 15억 이래 가지고 30억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2012년 돼서야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 지원하는 바에는 조기 지원해서 문을 빨리 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전체적으로 재외동포 관련 다른 예산과의 균형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5억, 10억, 15억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관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설명을 했고 그쪽에서도 이것이 UCLA 측에서 300만 불 매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되면서 그 순차적인 금액에 따른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늘려 가는 방향으로 양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남경필 위원 그쪽에서는 되도록 해 주실 것, 어차피 해 줄 거니까 빨리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이 있다는 것을 차관께서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알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아마 차관께는 그 얘기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 것, 당위성은 인정하시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지금 JPO를 통해서 국제기구 진출률도 80%가 넘고……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80% 정도 됩니다.

○남경필 위원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유엔 분담률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들 평균이 30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렇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 정도 하려면 한 30억 정도 더 드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할 생각 없어요?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저희는 반영을 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그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남경필 위원 알겠습니다. 의지를 강력하게 가져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남경필 위원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재단이사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예산은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도 적게 증가가 됐고 아직도 너무 인건비가 낮은데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입니다.

저 나름대로 여기 이 자리에서도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했고 또 재경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실 그리고 대통령님에게도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좀 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월금 9억을 이쪽으로 편성시키면 실제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밖에 늘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늦었지만 후년도 예산에 내내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남경필 위원 인건비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낮지요. 전체 공기업의 53%밖에 안 됩니다.

○남경필 위원 차관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통상부제2차관 신각수 예, 그러겠습니다.

○남경필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남경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5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문학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송민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유명환 장관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고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FTA 관련해 가지고 외교부장관님께서 '국익 관점에서 필요하다. 가능한 빨리 비준하는 것이 좋다. 재협상 논란은 우리가 재협상을 자초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국익 관점에서 FTA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한 빨리 비준하는 것이 좋다.' 양국이 다 가능한 빨리 비준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빨리 비준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물론 그렇지요.

○송민순 위원 그리고 재협상 이 말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자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FTA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FTA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발효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능한 빨리 비준하는 것이 좋다, 조기 비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비준하면 금년에는 이미 미국 쪽에서 어려운 것 같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도 현재 문안에 있는 그대로 그렇게 비준을 할 수 있다, 비준이 될 것이라고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것은……

○송민순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딜레마는 뭐냐 하면 그러한 재협상의 가능성을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유로 비준의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점은 제가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들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고요.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서명을 하고 그 많은 여러 횟수에 걸친 특위 또 외통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다 밝혀졌고, 농어촌 대책 문제도 필요한 경우 하겠다, 해 나가겠다까지 했기 때문에……

○송민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한다 해도 지금 있는 문장 그대로 미국도 비준할 것이라고 자신은 못 하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야 아무도 알 수 없지요.

○송민순 위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한 가지 우리한테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지난 5월 22일 당시 오바마 후보가 기존의 한미 FTA에 대해서는 자기가 볼 때 여러 가지 흠이 많다. 물론 저는 오바마 당시 후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한미 FTA는 서로 50 대 50의 균형을 맞추어서 돼 있는 합의이기 때문에 그대로 비준하는 것이 한국의 이익이나 미국의 이익에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현실은 당시 오바마 후보가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혀 놓은 것이 현재까지 나온 가장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엄연한 현실로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비준을 먼저 해 버리면 미국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수정제안을 할 것이고 미국이 수정제안을 해 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그 수정제의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받든지, 받아서 협상을 다시 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미 FTA에 관해서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다리를 건너고 나면 거기서는 현재 문장대로 합의를 끝내야지, 비준까지 끝내야지, 발효를 시켜야지 그 다리를 건너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비준까지 한 것을 미국이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에 와서 다시 비준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교부장관께서 국회에 가져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비준하는 것이 과연 FTA을 살리는 길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장관의 책임 있는, 이 경우는 상당히 책임 있는 답변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발효시키는가 이 방법의 논의이지 이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겠지마는 작년에 사실상의 추가협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환경·노동에 관한 것은 미국 민주당 쪽에서 관심 있는 사항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들어가면 미국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국내의 세법도, 배기량 그런 것을 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 줬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이 픽업트럭의 25% 관세율을 10년 동안에 나눠서 철폐한다는 이런 문제 플러스 한두 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다시 재협상을 해 가지고 고친다 그래도 큰 효과가 없는 한두 개 문제이기 때문에……

○송민순 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FTA는 지난번의 소고기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것은 저울에 양쪽으로 50%씩 올려놓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라도 조금만 바뀌면 저울에 다 다시 달아야 되는 거예요. 소고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외교부에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조기 비준하는 것은 분명히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는 것을 정부가 잘 인식을 해서, 특히 외교부가 미국 내 사정도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청와대나 그리고 정부 내 관련 부처 또 정당에 여당을 포함해서, 객관적인 사항을 잘 인식을 시켜서 FTA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적 환경,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 이것은 아마 유 장관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이 FTA를 살려야 되거든요.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평가와 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한테 인식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에,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이고, 제가 좀 거리를 두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발 우리 국가이익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서 거기에서 표류하고 이것이 한미……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까지도 상당히 마찰을 일으키고요, 굉장히 앙금이 생기고 그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냉철하게 처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위원 외교부 예산 중에서 글로벌 인턴 추진 예산이 빠져 있다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북한의 검증 문제에 대해서, 시료채취 불포함되어 있다 이런 발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발표를 보면 부시 행정부 내의 6자회담은 그 생명력을 다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진위가 어떻게 되나 따져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저로서는 금년 7월 12일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한 팩트 시트(fact sheet) 10월 11일 발표한, 이 두 개의 서면을 가지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은 시료채취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합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관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면합의서 같은 것 있다 이렇게, 북한도 인정하고 했는데 그것 보신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 가지고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진영 위원 그것은 밖에는 발표 안 하기로 합의된 사항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북 간의 잠정적인 합의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6자회담에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문학진 간사, 황진하 간사와 사회교대)

○진영 위원 6자회담에서 합의가 되어야 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그 관계에서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했다, 그전에 질의드릴 때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6자회담이 언제쯤 개최될 수 있다 이런 협의한 적 있나요,

미국하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부터요?

○진영 위원 아니요, 그 당시. 그러니까 테러지원국 해제할 때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평양 갔다 와서, 그전에 우리랑 협의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진영 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말할 수가 없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협의를 할 때 이런 걸 하면은 6자회담으로 합의서가 채택이 돼야 되니까 언제쯤 열리면 좋겠다 이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당시의 얘기는 하여튼 미국 대선이 11월 4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선 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미국 측은 구태여 이 문제는 대선과 관계없이 6자 간에 합의되는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영 위원 만약에, 지금 안 열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진영 위원 6자회담이 채택이 안 되면, 채택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안 한다든지 아니면 합의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된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런 얘기는 원론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다시 철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이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영 위원 그럴 수 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진영 위원 그러면 검증을 하는 시기는 언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된 적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도 저희들은 2단계에서, 검증이 신고하고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2단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진영 위원 아니,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것 보면, 전문을 한 것 보면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게 북한의 입장인데 우리는 2단계 내에서도 하도록 노력하자……

○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얘기할 때는 합의가 안 됐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진영 위원 그다음에 미신고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방문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특히 핵실험하는 장소랄까, 미국에서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들은 적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위원 미국이 그때 얘기했나요? 미신고 시설 핵실험 장소도 갈 수 있다, 가는 걸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어려운……

○진영 위원 그러니까 평양 갔을 때 그 부분을 합의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나중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영 위원 그다음에 시료채취는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했을 거고, 미국이 팩트시트(fact sheet)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채취한 시료를 미국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것도 합의했다 이렇게 들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반출도 포함이 돼 있는……

○진영 위원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미국이 생각했던 입장, 평양 방문하고 나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할 때 북한과 합의한 사항과,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발표한 사항 보면 북한 발표는 '서면합의 된 후에 한 자라도 더 요구하면 이건 전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과연, 북한을 이상한 사람들로 자꾸 몰 게 아니라 저는 미국의 협상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했으면 북한이 이렇게 나올 때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사항은 이게 아니다 말이지, 합의한 건 이거 아니지 않냐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발표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직 공식적으로 힐 차관보가 얘기는 아직 안 했고요. 일단 국무성에서 지금 북한의 진의를 확인 중이다 조금 기다려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북 간에 접촉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의한 걸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시료채취 할 수 있고, 밖에 나가서 검사할 수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6자회담 열려서 그것을 합의할 거고, 또 신고되지 않은 곳 중에서도 우리가 가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합의된 걸로, 거의 합의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문을 보면 전혀 그것하고 틀리다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진영 위원 그러면 왜 틀리는지, 왜 합의해 놓고 이렇게 틀리는지를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북한의 진의를 알아본다는 얘기는 알아보고 나서 진의가 뭐다, 지금까지 모든 일이 있을 때 북한의 진의를 알아본다 그랬다가 알아보고 나서 국민에게 발표한 적 있습니까? 진의가 이거였구나, 그때 그게 말이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다 알려지게 돼 있지요.

○진영 위원 그러니까 알아본다 그게 아니고 명백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국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할 겁니다. 뭐 국무성에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진영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 문서 보셨다 그랬으니까 그거 문서 보신 결과 어떤 게 맞아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돼 있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모호성이 많아 가지고, 합의한 문서에 모호성이 많아 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을 국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영 위원 예, 그 부분을 언론에서도 봤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미국이 다시 그것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북한하고 하고 있는 과정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영 위원 그래서 6자회담에 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선택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쭉 지내온 과정을 보면 모호한 문장이 매우 많고 그 모호한 문장에서 매번 북한에 밀려온, 그리고 또 모호한 문장을 쓰고……

요전에 크리스토퍼 힐이 갔다 와서 뭘 진행하고 있다고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셔서 '모호한 문장이나 그렇게 쓰면 좀 말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관님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알아요? '이번 건은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모호한 문제가 많다는 것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문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점은 미 측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힐 차관보도 그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진영 위원 저는 이런 문제가 끝없이 되풀이 되는 것은 비핵화로 나가는 데서 바람직하지 않고 남북문제를 하는 데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진영 위원 왜 모호한 문장을 계속 써서, 모호한데 북한이 왜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해석하겠어요. 6자회담에 관한 충분한 분석을 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물론 누군들 모호한 문장을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컨스트럭티브 엠비규어티(constructive ambiguity)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컨스트럭티브 엠비규어티가 아니고 그 반대가 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구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구상찬 위원 서울 강서갑의 구상찬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두 선배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도 역시 서면질의로 하고 북한 외무성 시료채취 거부 담화에 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방금 진영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6자회담 무용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핵 물질 시료채취를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과거 핵과 현재 핵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이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지요.

○구상찬 위원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구상찬 위원 이번 조치는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를 북미 직접대화로 끌어들이려는 미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서 상대방의 이목을 끌고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판을 벌이는 북한 고유의 또 특유의 협상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 오바마 정부가 북한 핵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장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것은 뭐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기 전이라도, 아마 현재 부시정권 하에서도 북한하고의 협상을 다시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상찬 위원 이런 것을 보면 말이지요, 6자회담의 장래는 굉장히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이번 담화로 북미 직접대화의 동기가 더 강해지는 바람에 북한에서는 오히려 6자회담의 비중이 더 떨어지고 또 북한에서는 애초에 6자회담보다는 북미 직접대화를 원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북한으로서는 그렇겠지요.

○구상찬 위원 그래서 이번 시료채취 거부 이 담화는 북한의 전략적인 협상구도, 6자회담에서 북미 직접회담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시료채취 거부는 북한이 핵 무장 능력을 공개할 의사가 없다, 또 공개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북한 정권하고 북한 군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위상 굳히기에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북한의 의도를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그렇게 검증을 거부하면서 미북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상찬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견해가 장관님이랑 다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환영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뭐라고 했느냐 하면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한다면 다시 철회된 제재를 부과하는 것 플러스 새로운 제재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명을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검증을 회피하면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구상찬 위원 뭐 그런 상황이 사실이면 다행이고요.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검증 방법에도 우리 진영 위원이 제기했듯이 굉장히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샘플채취, 미신고 시설 사찰,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 등에서 북한하고 미국 말이 지금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구상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현장방문이라는 단어 표현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통상 방문이라는 것은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방문이라는 것은 집주인의 안내로 돌아본다는 얘기거든요.

장관께서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루어서 전문가이셔서 아시겠지만 북한의 낱말과 한국의 낱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방문이라는 것은 통상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집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검증 활동 자체도 북한이 데리고 다닌 데만 검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유권해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검증 자체, 협상 자체부터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미국의 협상 방법이.

또 당초에 6자회담이 5 대 1 회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구상찬 위원 그 5 대 1 회담이라는 것과 같이 북한하고 미국·중국·소련·일본·한국 5개국이 다 1 대 5, 5 대 1로 싸우는 그런 회담이었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6자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우리도 6자회담에 대한 중간평가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6자회담 무용론이 학자들 사이에 서서히 나

오고 있는 것 장관님 알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아직은 뭐 그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상찬 위원 지금 학자들 사이에도 서서히 6자회담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할 오바마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6자회담의 전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해서 새로운 북핵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떠나간 노무현 정부 또 떠나가는 부시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6자회담을 아무런 비판이나 평가나 여러 가지 상황인식도 없이 새로운 대북 정책의,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의 토대로 삼은 것은 정책적 오류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북핵 정책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6자회담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미북 간에 제네바합의의 한계를 서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6자회담이라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워크(framework)를 만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바마 행정부도 6자회담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자회담에 대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의 효용성을 항상 검토하고 재평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또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인 그런 역학관계를 검토할 때 현재로서는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플래폼이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구상찬 위원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북핵 정책은 없는 것인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북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이미 공표를 했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포럼으로서는 6자회담을 계속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입니다.

○구상찬 위원 시간돼서 이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보충시간 이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문학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경색국면, 여러 루트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나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또는 자세를 보면 개선될 조짐이 영 보이질 않네요.

장관께 이렇게 한번 여쭤 볼까요?

북한과 미국의 대화와 더불어, 더더군다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매우 지속적이고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외교를 펼칠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을 하는데, 북미대화가 활성화되면서 동시에 남북대화가 활발하게 병행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북핵 문제 해결 또 6자회담 진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진 위원 그렇지요? 매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당국 간의 대화에 응하라고만 북한에다 대 놓고 되풀이 주장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행동, 대책 나온 게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남북한에 대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냥 '대화 테이블로 나와라, 나와라'고만 하는 이 말만 있지 구체적으로 아니면 이면에서라도 북한과 접촉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잡히는 것이 없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여러 가지 채널로 북한과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진 위원 여러 가지 채널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채널을 이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좀 곤란하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여러 가지 채널로 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문학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공조만 이명박 정부가 너무 강조를 하고 있고, 한미공조만 잘되면 대북한 관계도 자동적으로 풀릴 것으로, 그리고 장관께서도 최근에 '걱정하지 마라, 다 잘될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셨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걱정하지 말라, 잘될 거라고……

○문학진 위원 '다 잘될 거다' 뭐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문학진 위원 다 잘되면 좋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문학진 위원 다 잘되면 좋은데 하고 있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면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파이프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로서는 좀 확인이 잘 안 되는 거고요. 말씀 못 하신다니까 확인 잘 안 되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한미공조를 통한, 한미공조만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만 잘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김영삼 정권 때 남북관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미국하고도 관계가 아주 이상해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김영삼 정권 때 했던 것을 지금 되풀이하는 거 아닌지,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실제로 걱정이 되거든요.

뒤에서 좀 하시는 거 조금이라도 얘기할 수 없어요? 좀 알고 싶네요, 뭘 하고 계신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지금 남북 간의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외교 문제와 내부 정치적 문제가 엇갈려 있는 문제인데 순전히 외교적인 측면에서만 보기가 어려운 면이 많은데, 북한이 지금까지 새 정부 들어서 하는 것은 한국의 정부가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난 정부와 똑같은 대북정책을 새 정부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내 정치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똑같이 북한의 과거의 주장만 계속 집요하게 주장하면서 우리의 퇴로마저 차단하고 우리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거와 똑같이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북한의 태도가 경직되어 있고, 대화마저 지금 공식적인 대화를 안 하고 자꾸 뒤에서의 대화를 원하는 식의 어프로치(approach)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진 위원 예, 알아듣겠는데요.

뒤에서 대화를 하든, 하여튼 그것도 다 대화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를 동원해서 뒤에서 지금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 하여튼 뒤에서든 앞에서든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 어제 통일부장관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대요. 거기서도 걱정들을 많이 쏟아 놓은 모양인데, 또 일반 국민들도 어제 북한의 몇 가지 발표 때문에 육로 통행이 전면 차단되는 거 아니냐 또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실제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론 뒤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면적으로 대북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 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관 견해 말씀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그 가시적인 전환이라는 것은 과거 정부로 되돌아가서 똑같은 대북 정책을 하라는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국민의 절대적인 압도적인 다수로 이명박 정부가 승리를 해서 정권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북한도 현실을, 우리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북한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좀 더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사건만 해도 그렇고 현재의 남북관계도 좀더 합리적으로 서로가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당국 간에 만나서 우선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진 위원 당국 간에 만나는 거를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든, 저는 아까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남북 간의 체제경쟁은 사실상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면 South Korea가 North

Korea보다는, 말하자면 빅 브라더(big brother)라고 할 수 있잖아요. 더 여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학진 위원 그러면 좀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든 끌어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난 그게 능력이라고 봐요. 우리 장관님 능력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해서 관계 좀 확 트세요. 이렇게 답답하게 가게 하지 말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칩니다.

○委員長代理 黃震夏 문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국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요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선언이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country risk)를 높인다고 봐야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래서 사실 좀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렇다면 정부의 역할이나 저희 사회지도층의 역할은 컨트리 리스크를 낮춰야 투자도 되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외화가 덜 빠져나가고 들어오게 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삐라 같은 거라든가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불필요한 과도한 억측, 그런 이야기들을 국민에게 호소해서 좀 없앨 수는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그러한 노력을 통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들한테……

○문국현 위원 북으로 보내는 게 아직도 TV 화면에 나오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래서 몇 NGO는 그러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서 중단한 NGO도 있고……

○문국현 위원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하면서 하필 그거는 왜 못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문국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다기화·다양화되고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공권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되실 겁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장관님, 개성공단에 대한 비상대책은 세워 놓으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건 통일부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일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면 외교적으로 좋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신정부에게 공개적으로 취임 전이라도 좀 일부 분들이 북한을 방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치적·외교적 제안을 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누가 방문을 하신다고요?

○문국현 위원 오바마의 주요 인사가 북한을 방문하게, 오바마는 1년 안에 방문하겠다고 했으니까 언제 방문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바마 진영 중에 한 분이 공식으로 좀 북한과 대화를 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실 수는 없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을 갑자기 바꾸시면 뭔가 압력에 의해서 바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 문제는 아직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지도 않았고 또 그런 면에서……

○문국현 위원 안 들어섰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럼으로써 북핵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경색이 풀린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면에서 현실성이 조금 적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저는 장관님께서 지금 그런 것 한번 권유해 보실 만한 아주 적절한 위치에 계시고 시기라고 보고요. 꼭 좀 우리 정부가 할 일만 생각하시지 말고 미국의 정부가 아닌, 정부를 인수할 팀 중의 한 분이 갈 수 있게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문국현 위원 FTA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장관님, 비준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기는 좀 조절할 수 있다고 이젠 생각하시지 않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그건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끝을 내야 했을 문제가 이렇게 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론되는 것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문국현 위원 많지는 않지만 제가 만나 본 미국 인사들은 지난번에 비해서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지난번 정권이 협정한 한미 FTA를 이 신 정권이 그렇게 열심히 해 주는 건 감동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 협정이 아주 잘됐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참 감동적이고, 우리나라에도 뭔가 컨티뉴어티(continuity)라고 할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좋다고 하는 것은 계속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까지는 외국한테 좋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만나 본 많은 외국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 우선 세계경제가 바뀌고 미국 경제가 위기에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오바마와 민주당의 정책이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귀를 기울여 줘야 된다, 그러니까 FTA의 협정문은 기본으로 두되 정책 선언이라든가 또 아니면 기타 양해각서 등을 어떻게 인포멀(informal)하게 논의할까 하는 그 준비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만난 많은 정치외교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장관님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으시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고, 그런 가능성, 여러 가능성을 정부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공식·비공식으로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TA 문제는 우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협정한 거고 또 양국의 이익이 균등히 다 잘 배려된 협정이다 이러한 판단을 아마 지난 정부에서도 했고 지금 정부도 그것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문국현 위원 장관님, 기본 협정문이 유지되면서 혹시나 미국의 자동차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리 개방해 봐도 미국의 자동차는 한국에서 많이 팔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국민들이 아주 좋아할, 이번에 국민들의 80% 이상 지지를 못 받았고 한 60%의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20% 포인트의 지지를 얻어 낼 무언가를 양해각서 안에 둬서 주고받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 협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장관님께서 유연하게, 윈윈 하자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 60%보다는 80%, 90%를 안고 가자고 하는 것이고 피해산업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니까 저는 장관님께서 좀 유연하셨으면 좋겠고요.

(황진하 간사, 문학진 간사와 사회교대)

국민 정서를 또 하나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데는 저는 상당 부분 진행된 인도와의 FTA는 물론이지만 거기보다 상징성은 유럽 것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럽 것을 조금 더 빨리 진행시키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비준까지 진행시키고, 그다음에 중국 것까지 선언을 해 놓으시면 중국도 좀 안정을 시키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혐한감정 같은 것을 받지 않고 또 국민들한테 '아, 유럽 대륙과 중국 대륙과 미국 대륙을 우리가 균형 있게 하는구나' 이런 대국민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장관님, 거기서 좀 조정하실 계획 없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거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흥경제권 인도하고는 지금 FTA를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서명을 할 예정이고요.

한·EU FTA도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지금 7차 협상에서, 오늘내일 브뤼셀에서 김종훈 수석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잘 아시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래서 그걸 마무리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다 끝을 낼 예정이고……

○문국현 위원 그래서 국민한테 보여 드리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셋 내지 네 가지 포트폴리오라고 그럴까요, 그 구성을 함께 보여 드리면 '미국만 제외할 수 없구나' 이렇게 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그럼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한미 관계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해서 한반도 전체와 우리 한민족 경제나 이 태평양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할 거냐' 이런 쪽으로 관점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거거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미측 오바마 후보가 얘기한 자동차 협상에 잘못됐다는 건 아주 피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70만 대를 파는데 왜 미국은 5000대밖에 못 파냐 하는 건데, 지금 미국 차가 한국에 들어오는 그 관세율이 8%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팔 때는 2.5%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FTA를 빨리 체결하는 것이, 이 8% 관세가 매우 큽니다, 미국 차를 더 많

이 한국에 팔 수 있는 거고……

우리가 70만 대 중에서 사실 20만 대, 25만 대는 미국 알라바마에 있는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북미 또 캐나다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 결코 미국도 그렇게, 서로 양측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된 거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국현 위원 위원장님, 이따 추가 질의 때 나머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예,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나라당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委員 한미 FTA 부분은 노무현 정권 때 체결을 했는데 그 당시, 작년에 그때 비준을 빨리 했더라면 참 좋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安商守 委員 지금 이런 어려운 입장에 또 봉착하지도 않을 거고.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또 새로운 상황 변경을 가져오고 있는데, 그때 해 놓지 않고 지금 와서 또 상황이 변경됐으니까 '한미 FTA 비준을 늦춰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사실 아까도 그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들었습니다. 이미 벌써 체결한 지, 서명을 한 지 1년 반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安商守 委員 또 북한이 요사이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새로운 미 행정부가 6자회담과는 별도로 대북 채널을 가동하고 또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든지 또 평양에 외교대표부를 설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북·미 직접 접촉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생각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미 직접 접촉은 항상 가능하고 항상 예상,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북·미 접촉을 하는 이유와 명분 또 실리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 정권이 가장 앞으로 중점을 두게 될 소위 민주주의 인권 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어떠한 미·북 접촉도 우리가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접촉, 미·북 간의 접촉을 통해서 북한 핵문제의 가닥이 잡히고 북한에 민주주의 인권 개선의 효과가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은 지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安商守 委員 좋습니다.

예산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2009년도 정부 일반회계 예산안은 작년 대비 7.8%가 증가한 반면 외교부 예산은 3.9% 증가함으로써 정부 예산 평균 증가율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게요.

그런데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됐는데 외교부의 경우 달러화 예산이 총예산의 49.5%를 차지해서 달러 급등에 따른 예산 부족이 예상됩니다. 예산을 짤 때는 1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해서 책정했는데 현재 1달러당 1300원 수준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이 줄어, 말하자면 달러화가 급등함으로써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외교부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환율에 대한 비예측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환차손을 보전해 주는 그런 조치가 있는데 그것이 100% 보전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환차손을 100%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평소에 긴밀히 협의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安商守 委員 우선 그 환차손이 보전돼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안이 7.8% 증가했는데 외교부 예산이 3.9% 증가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 말하자면 지금 자원외교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유대를 좋게 해야만 할 여러 가지 외교 관계, 통상 관계도 있고 해서 오히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줄어 버린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에너지·자원외교 강화를 위한 에너지 협력외교 또 통상외교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는 기본적으로 외교부 예산이 우리 전체 정부예산의 최소한 1%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0.66%에서 0.67%고…… 계속해서 이것이 퍼센티지가 줄어가기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원외교·통상외교에 있어서 최소한도 한 30%는

현액보다 증액이 돼야 합니다만 정부의 어려운 살림살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그런 사정입니다.

○安商守 委員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나가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현지 공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절약해 가지고 쓰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이 배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 외교활동비가 2004년에 한 250억에서 오히려 금년·내년에는 150억대로 거의 한 50%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安商守 委員 외교통상부 총예산 1조 2136억 원 중에 순수 외교사업비로는 558억 원 정도만 산정돼서 외교 업무 수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가 봐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安商守 委員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지적입니다.

○安商守 委員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박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6자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북·미 직접 대화하는 것 지지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입장이 결정되기 전에, 북·미 직접 대화를 함에 있어서 미국 입장이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한미 간 사전 공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전 공조가 안 되면 우리 한국은 주요 결정을 사후에 통보받고 비용만 부담하는 미국에 대한 종속변수로, 북한이 볼 때 종속변수로 간주될 것입니다. 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질 때 당시 김영삼 정부는 통미봉남 효과를 막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서 북·미 간 합의문에 남북 대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 이 직접 대화는 단순히 핵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협정 전환 문제, 특히 평화협정 당사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주요 사항이 논의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공조가 소홀히 되면 북한은 한국 정부를 경시해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데도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 환영연에서 제가 축사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은 지금 제가 주장한 이 사전 공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한미 간의 사전·사후 공조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런데 미국 대선 당시인 10월 21일 공화당 매케인 후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결정을 미국이 내릴 때, 결정을 내린 뒤에 한국과 일본에 통보했다. 이것은 동맹과의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없다' 하고 부시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은 10월 21일 국감 질의 때에는 마치 결정 전에 한국과 협의가 된 것 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답변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나간 답변을 특별히 문제 삼고 싶지는 않으나 앞으로 한미 간에, 특히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어떻게 사전 공조를 관행화시킬 것인가, 확실한 사전 공조를 관행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답변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북한을 테러리스트에서 해제한다는 것은 6자회담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시점만 남은 상태에서 제가 9월 22일……

○박상천 위원 제가 물은 것은 검증 전에 해제를 했단 말이야.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말입니다.

○박상천 위원 그것을 사전에 합의했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유엔총회에 제가 참석하는 기회에 라이스 국무장관하고 힐 차관보 그다음에 김숙 본부장,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러면 매케인 후보가 거짓말했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어느 이유에서 어떻게 얘기한지 모르겠으나, 일본을 두고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도 한미 간에는 사전·사후에 협의를 했고 또 10월 1일날 힐 차관보가 북한에 가

기 전에, 9월 30일날 한국에 성김 그 특별 대표하고 같이 와 가지고 한미 간에 하루 온종일 협의를 했고 또 갔다 온 10월 3일날 협의를 했고…… 그래서 돌아가서 10월 10일날…… 또 발표하기, 10월 7일날 저하고 라이스 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 10월 9일에도 2차 통화를 하고 10월 10일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라이스 장관하고 세 번, 한 번 만나고 두 번 전화 접촉을 통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통보받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두고 싶습니다.

○박상천 위원 그리고 앞으로,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핵 관련 북·미 직접 대화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과 어떻게 사전 조율을 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관행화시킬 것인지…… 사전 조율 당연히 한다고 하겠지. 관행화를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이걸 습관을 들여놔야지 습관을 안 들이면 아까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장관은 지금 뭐라고 길게 말씀하십니다마는.

미국 대선 후보가 같은 공화당 정부를 공격하면서 거짓말까지 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그건 놔둡시다. 나, 그거 따지려고 질의한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미국 사람들에게 습관을 들일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한미 간에 그런 공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협의 채널이 있습니다. 한미 간에 전략대화, 장관급 전략대화 채널이 있고 차관급 회의가 있고 차관보 그다음에 수석대표 간의 회동이 수시로 리얼타임으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들로서도 최대한 긴밀한 그런 협의가 지속되도록, 새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유지할 생각이고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천 위원 사전 조율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우리가 미국 입장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미국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입장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령 한반도에서 무력 사용이나 이런 거……

그래서 가부간에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사전에 결정한 내용을 모르고 사후에 통보받는 일은 없도록 장관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박상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 한미 FTA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이미 합의가 다 끝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지 된다 하는 한나라당 입장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좀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우선 이렇게 비준을 할 때 우리가 지금쯤 비준을 하면 미국이 언제쯤 비준할 것 같은지, 또 미국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을 서로 봐 가면서, 너무 우리는 비준했는데 한 8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비준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우리가 먼저 한다 그래서 미국하고 꼭 비준의 시점을 맞춰야 하는 것의 이점은 뭡니까, 그러면?

○이미경 위원 그러면 비준을 서로 간에 맞추어서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비준해 놓고 한참을 기다려야지 된다, 그러면 또 곤란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는 비준을 하더라도 24개 법안을 다 개정해야 한다는 엄청난, 오히려 우리가 같이 비준을……

○이미경 위원 마찬가지지요. 미국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미국은 이행법안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다 끝나지만 우리는 비준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국내법 24개를 개정하는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비준을 하더라도 우리가 더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24개 법안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것은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할 시간도 참 부족하겠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비준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추면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수행되는 부수법안들 정리를 해 나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는 상당히 사정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다시 재협상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겠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은 사실은 미국발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따라서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은 없을까, 우리도 그것 한번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해서 각종 보완대책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한나라당에서도 하고 또 장관께서도 하시는데 여기와 연관돼서 정말 충분한 것인가, 예를 든다면 4월에 발표한 한미 FTA 거기에서 지금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지속을 보면 투자은행 육성, 파생상품 취급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은행 선진화, 이런 것 계속 나와 있는데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바로 이런 파생상품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각종 보완대책은 이것을 더 확대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점은 이미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무조건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한미 FTA에 금융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는 것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가 10년 전에 환란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사실상 거의 개방이 됐기 때문에 FTA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이미경 위원 큰 영향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영향에 따라서 처음부터도 산업은행 민영화해서 투자은행(IB)으로 바꾸자 이런 식의 계획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들 지금 불안한 겁니다. 어떤 후속대책을 이 금융위기,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대비를 하고 있는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해 놓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것이 전체의 합의내용을 안 바꾸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있는지 이런 것 좀 따져 봐야지 된다는 게 국민들 생각이에요.

농업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쌀 직불금이든지 이런 것 그 후속대책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보자, 시간이 아직 저희가…… 미국도 대선 이후에 시간을 좀 갖게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좀더 따져 보자, 굉장한 큰 경제적인, 세계 경제의 변화가 온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하고 연관돼서 FTA 관련해서는 여전히 예산 편법 증액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통상분쟁 대응한다 하는 사업으로, 3억 7000만 원을 감소한 예산으로 지금 잡아 놨는데 보면 이것은 통상분쟁 대응보다는 FTA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로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이게 편법 증액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잡든지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예산하고 연관해서 이것은 제가 관심 가지고 죽 진행해 왔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올라와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김영옥 연구소, 재외동포재단하고 연관해서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아시지요? 김영옥 연구소에 대해서 장관님 알고 계시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좀 답변할 수……

○이미경 위원 아니, 장관님은 알고 계시냐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래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데 FTA 예산 관계 답변을 좀 드리면요, 그것이 분쟁대상으로 한 것이 카테고리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FTA 추진 예산하고 이행에 따른 예산하고 카테고리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편법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FTA에 추진하는 건수가 너무 많고 대상이 많기 때문에 편

의상 예산을 나눴습니다.

○이미경 위원 편법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 안에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경 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로 집어넣고 해서 추진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김영옥 연구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른 연구소와 달리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오바마 집권 이후에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는 UCR대학이 또 매칭펀드를 해서 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좀 들어왔는데 제대로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UCR하고의 관계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총액으로 잡아 놓은 예산을 거의 빠른 시일 안에 집행을 해서 같이 매칭펀드가 바로 이행되고 교수가 임명될 수 있도록, 교수를 미국 대학에서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 이후에 한참 우리 소수민족, 특히 한국 동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작업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은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옥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기본적으로 환차손의 문제라든지 또 적극적인 21세기 외교를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외교부가. 그런데 여전히 효율의 문제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요를 과소예측해 가지고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한다라든지 또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과다 편성 관행을 답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고요.

제가 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이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외교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 국익을 위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가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를 이념이 아닌 실용으로 해결하자. 실용이야말로 국정운영의 철학이어야 한다', 이것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지향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이런 얘기 언제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항상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시지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유무역,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실용주의, 국익을 위한 유연한 정책, 국가가 당면한 실질적 문제를 이념이 아닌 실용으로 해야 된다. 당파적 이념, 특히 당파적 이념을 경계해야 된다. 실용이야말로 국정운영 철학이어야 한다', 마치 이명박 정부가 한 얘기같이 들리는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오바마 당선자가 유일하게 뽑은 백악관 비서실장 램 이매뉴얼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지금 마치 또 미국 민주당이 한국의 민주당하고 유사해서 상당히 진보적일 것이다라는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 민주당의 정책은 훨씬 실용적이고,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부시 정부와 조율을 잘했듯이 앞으로 오바마 정부와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낙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바마가 후보 시절에 몇 가지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물론 공식적으로 지금 오바마 캠프에서 재협상에 대해서 운을 뗀 적은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뗄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鄭玉任 委員 제가 볼 때는 제가 미국의 행정부의 어떤 협상의 당사자라면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주 쉬운 협상상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재협상을 하고 싶은데 먼저 알아서 재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먼저 그 미국의 재협상에 대해서 아주 속된 표현을 하면 호들갑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한국과 같은 나라야말로 정말 상대방이 생각할 때 이렇게 협상하기 쉬운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 외교부장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존경하는 정옥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제가 오늘 아침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크게 이슈로 삼아서 논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그런 솔직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다음에 미국이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협상을 한 예가 많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주로 협상을 종결한 이후에 미국의 국내법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특히 환경·노동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협정안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지,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추가협상을 통해서 다……

○鄭玉任 委員 환경·노동 문제, 우리는 이미 다 정리한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다 정리를 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미국의 자동차가 한국에 수천 대밖에 안 팔린다고 오바마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불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FTA가 통과되어야만 미국 차가 한국에 수입될 수 있는 여건은 훨씬 좋아진다고 말씀하셨고 그게 사실인 것이지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의 수입관세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다른 차보다 경쟁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鄭玉任 委員 아주 흥미로운 현상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해서 자주를 주창하는 정치 하시는 분들, 재협상을 하면 다른 분야 독소조항을 다 제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재협상해야 된다, 비준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요. 또 다른 쪽, 미국과 더 친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우리가 미국의 입장을 좀 미리 알아서 챙겨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이 어차피 재협상 요구를 할 테니까 우리가 기다려 주자, 서둘러서 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저는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입장은 다른데 결론은 똑같다 이겁니다. 비준을 서두르지 말고 재협상에 대비하자라는 입장, 심지어는 FTA의 주역이 된 두 분, 전직 대통령 그리고 전직 외교부장관이시면서 현(現) 의원님도 같은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외교부장관으로서의 소회를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그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전 정부에서도 그러한 철학하에서 한미 FTA를 어렵게 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17대 국회에서 마무리가 됐었어야 할 문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미국의 국내 경제사정이 상당히 나빠졌기 때문에 오바마가 후보 시절에 자동차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왔지만 이미 우리 한미 간의 FTA는 무역협정 아닙니까? 금융에 대해서는 단단한 안전조처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런데 미국 국내 경제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서 FTA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협상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문호를 열어 놓으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예를 든다면 농산물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확대한다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적 관측이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전체의 틀을 다시 다 뒤집어엎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협상을 할 확률이 더 높습니까?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의 경제상황이 과거보다 더 나쁜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상황이 나쁜 것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기본적인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재협상을 할 경우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여건이 틀림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치지 않도록 자유무역주의를 한미 간에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의무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鄭玉任 委員 1분 더 쓰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한·칠레 FTA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농업인들의 비판 또 그분들 이익을 옹호하는 분들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에 우리 농업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타격을 주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희들이 분석 평가한 바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익에 맞춰서 우리의 법적 절차에 따라서 FTA를 비준을 하고 그 후에 미국에 대해

서 나름대로 조처를 취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이 과거 수십 년 동안 몸 담아온 외교부의 관료로서 그리고 최고 정책결정자로서의 소신이라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입니다.

○鄭玉任 委員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위원 반갑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나가시는 데 준비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지금 떠나기 이틀 앞두고 북한이 또 그런 엄포를 하고 이래서 대통령 심기가 많이 불편한 것 같은데 안 계시는 동안에 나라를 잘 지키도록 장관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동안에 사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하고의 신뢰관계를 쌓아서 남북통일로 가는 길을 좀 당기자는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면 여러 가지 북한의 엄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럴수록 의연하게 침착하게 우리 외교에서는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최소한 북한의 우리 측에 대한 엄포가 단지 말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 긴급안보정책 조정회의를 하셨다면서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어제 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래서 거기서 대북 전통문을 보낸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혹시 밝힐 수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오늘 10시 40분에 국방부에서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의화 위원 발표가 다 되었습니까? 제가 오늘 미처 아직 그것을 보고를 듣지 못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이 아무리 선군(先軍)정치를 한다고 그래도 그동안 남북관계에는 통전부와 같은 민간 대남 전문가들이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 군부가 직접 나선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장관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한 가지 이유를 단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에도 제가 한번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북한의 속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과거에 치열한 교전 중에도 교전 당사자들하고 물밑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는 대북특사 형태가 되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대북특사를 보낼 정도 형편이 안 된다면 대북비선 라인 가동이나 또 비공개 물밑 접촉도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남북 인사 간에 말 그대로 페이스 투 페이스(face to face)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같이 논의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는 만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즉답을 바라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정의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예산 관련해서는 앞으로 미래를 봐서 전 세계 188개 수교국에 1인 공관이라도 다 보내자 하는 주장을 제가 몇 년 전부터 늘상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봐도 순증이 불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는 지금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내부적으로는 공관 증설 계획을 순차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새 정부가 나라살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인원·예산을 거의 동결 특히 TO를 늘리는 것은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래서 제가 늘 그동안에 주장했듯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IT 강국이라 그러면서 모든 조직은 과거와 똑같고 행안부의 각 동회 직원은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숫자를 줄이고 그 예산을 줄여서 미래를 향한 외교 쪽으로 돌리라는 주장을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장관께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좀 실망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닙니다. 좋으신 지적이고, 그것은 국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예산과 저거를 확보해 주셔야만 됩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는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정의화 위원 그것은 늘 이제, 또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런 식의 예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수준을 넘지 못해요. 이렇게 가서야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늘 국토도 대 개조론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예산 부분에서도 정말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교부장관이면 국무회의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신데 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과 같은 템포로 가서는 너무 늦다는 거지요. 좀더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관은 어디서 예산을 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문화관광부에서……

○정의화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부장관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하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제가 의사표시를 했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의화 위원 누구 비서관 시켜 가지고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제가 내일이라도 당장 문화관광부장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즈벡을 우리 편으로 끌어당기는 데는 문화관이 굉장히 시급하다, 교육관은 그대로 두고 말이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JPO라고 해서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사업 있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의화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엔가 5명 정도 갔지요? 아, 올해 파견된 게 5명에 불과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도 키워 가야 되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분명히 이야기했듯이 숫자도 늘려 가야 되겠지만 이 부분의 예산도 좀 늘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관의 인턴 문제나 해외봉사단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얼마나 순증을 하였습니까? 제가 보니까 별로 이런 부분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외교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예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외교부의 요청이 거의 반영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저희 외교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의화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유명환 장관님을 개인적으로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만 하나 좀 아쉬운 게 명색이 여기가 요새는 외교통일통상이라고 그러지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자리가 꽉 차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중진이 여기 다 계십니다. 활용하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알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제가 직전 재경위원장인데 저에게 전화 한 통화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주장에 대해서 부탁하고 언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누구를 잠깐 만나달라, 예산실장 만나 달라 한번 좀 어떻게든…… 노력, 전혀 하지 않으세요.

오늘 위원님들 안 계시지만 전화받은 분 계신지 제가 한번 앙케이트 돌려 볼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제발, 제발…… 너무 점잖아요. 외국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외교적으로 맞지만 국내에서는 좀더 영어로 하면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역동적으로 좀 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뛸

테니까 요구를 하시라니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알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관심 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황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외교부장관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 토론 시간인데 FTA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시간이 되면 예산에 관계된 것 얘기하고 아니면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FTA를 선 비준하느냐 아니면 선 비준하지 않고 대책이라든지 미국의 자세를 보면서 해야 되냐 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우리는 정부 여당에 한미 FTA를 가급적 신속히 비준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도 드렸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개별적으로 설득도 하고 또 야당도 찾아가서 저희의 입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FTA를 야당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와 답변을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선 비준을 하게 되면 재협상 요구가 왔을 때 무슨 방법으로든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곤욕스러울 것이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FTA가 죽는다, 그러니까 FTA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송 장관님이 바로 그것을 한 분이고 전문가이신 분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도 '아, 그런가 보다'하고 다 쫓아다닌다고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어제 공청회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직접적으로 질의를 했느냐, '미국이 재협상 요구해 올 것이냐?' 분명히 해 온다고 주장하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오면 우리 한국은 자동차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 받고 우리가 불만스러운 부분은 제기 안 할 것이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정서가 못 견디게 만든다 이거지요.

그중에서 특히 지금 농어민 문제가 많은데 농업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재협상하겠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답변하겠나? '못 받을 거다', 그러면 미 측이 요구해도 못 받고 우리가 요구해도 못 받고 그러다 보면 양쪽에 서로 불편한 관계만 생기면서 해결은 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은 FTA를 파괴시키자는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농수산 문제 결국 못 받는 것도 못 받는 거지만 이것은 FTA를 통해서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FTA를 살리기 위해서 재협상의 문을 열어 두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야 FTA가 산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대답을 결국 흐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는 쪽까지 갔어요. 그것은 어제 안타깝게도 민주당 위원들이 안 들어오셨지만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은 그것을 공감대를 거의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도 전문가 아니겠어요? 송민순 장관님도 전문가이시지마는 지금 유명환 장관도 외교부의 전문가 아닙니까? 협상도 많이 해 보셨고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며 우리가 농수산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을 때 그 쪽에서 못 받고 그러다 보면 결국 FTA가 사는 게 아니라 죽는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 FTA 협정을 지금 재협상을 한다는 것은 FTA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그나마 더 저하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문제는 가급적 조속히 비준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대책은 또 대책대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답하기가 거북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FTA 재협상 문을 열어 놔야 FTA가 사느냐 죽느냐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생사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이렇게 답변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재협상에 들어가면 이것이 FTA 협정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黃震夏 委員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재협상 문을 열어 놓는 것이 FTA가 죽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런데 지금 재협상을 열어 놔야 FTA가 산다라고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 분이 FTA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전직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FTA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것은 FTA를 죽이는 결과가 올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다시 확인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동의합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전문가 입장에서도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 협상문을 열어 놓아야 되고 협상문을 열어 놓기 전에는 우리는 선 비준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농민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민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는데 농민 대책은 계속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공청회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 분명한 보완대책 안 세우면 그럼 비준을 못 시키는데, 비준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그러면 비준을 안 하면 당신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보완대책에 쓸 예산을 집행 못 한다 말이지. 그러니까 '보완대책은 만들어 주시고 비준동의 절차는 동시에 밟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서는 보완대책부터 만들어야…… 보완대책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닌데 계속 보강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상정하는 것도 못 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어떤 얘기를 믿어야 될지 국민들은 헷갈린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보완대책에 대한 문제는 외교통상 장관께서 답변하기가 나쁘겠지만 이런 점이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한 것은 좀 더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외교통상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 약속하시겠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홍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震夏 委員 그러니까 재협상 문을 열어 놓는 것이 FTA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FTA를 죽이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유를 조목조목 달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분명히 필요한 보완대책이든지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것은 최대한 문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에서 지금 달러 값이 엄청나게 뛰다 보니까, 달러 값이 떨어질 때도 있지만 특히 달러를 사용해야 되는 정부 부처일수록 이 환차손·환차익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외교부에서도 어떤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외교부 예산 중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달러로 써야 된다고 할 때는 예산 자체를 달러로 명기가 된 예산을 하고 그때 환율로 예산 책정을 하지만 차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은 관계 부처에서 보전해 주는 쪽으로 하면 환차손·환차익 때문에 애를 먹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사실 이미 일부 예산은 달러로 책정되고 달러로 집행되는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차 보전 문제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黃震夏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한테 두 번째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전에 제가 한번 미국 눈치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지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미국 아니라 할아비라도 눈치는 안 본다' 그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이 당연히

전문가지요. 그런데 지금 송민순 위원님과 한미 FTA에 관해서 같은 의견을 주장하는 모 당의 위원들을 다 송민순이를 쫓아다닌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쫓아다니나요?

우리도 다 우리 나름의 판단이 있고, 물론 송민순 위원이 더 전문가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쫓아다닌다는 발언은 조금 과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 유감 표명을 합니다.

○黃震夏 委員 쫓아다닌다는 말은 제가 표현이 좀 저거한지 몰랐는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민주당 신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균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여성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막 마치고 오느라고 제대로 출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선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모토였던 변화는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이나 기타 대외정책에서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당선자는 지난 부시 정부 초기 압력과 제재 위주의 대북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워 주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에너지경제 지원 등의 과정과 동시에 맞물려 진전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굴복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과도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비핵·개방·3000 도그마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계승과 실질적 이행의지 피력을 시작으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다시 여쭙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집착하는 6·15, 10·4선언에 대한 우리의 정부 입장은 수차에 걸쳐서 발표한 바가 있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낙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냉각은 두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좀더 획기적인 변화와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매우 우려되는 면입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WEST 프로그램에 관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감에서 WEST 프로그램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특히 저소득층 지방 대학생에게 기회를 주자는 제안을 했고 장관께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런데 2009년도 예산안에 WEST 프로그램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물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또 예산 책정을 한 푼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 프로그램 시행을 기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실망을 할 것입니다.

WEST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면 장관께서 책임지고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WEST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선발, 그다음에 미국의 취업 알선 기관과의 접촉 이 과정은 외교부 소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가는 학생들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소관 부서 문제로 해서 우리 외교부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그런 위원님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이 외교부에서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라고 보신다는 뜻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 57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낙균 위원 WEST 프로그램이 우선 주무부

처는 외교통상부일 것이고 관련 부처는 교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과부의 예산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 문제는 지금 얼마가 반영됐는지는 기존 프로그램 예산을 할 수 있는지는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아직도 저소득층이나 지방 학생에게 상당한 배려가 될 것이라고 교과부하고 그런 교감은 갖고 계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단 파견 인원의 약 20%를 저소득층에 할당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신낙균 위원 겨우 20%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20%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할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선발 과정은 소득의 차이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는 성적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현재 계획으로는 한 20% 정도는 특별히 저소득층에 할당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런 20%에 들어가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학생들에게는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낙균 위원 저도 성적, 그러니까 그런 걸 이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저소득층이라고 무조건 선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학연수이고 또 장래의 직장하고,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더 배려가 필요하고 저소득 또 지방 학생들한테서 이만한 숫자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안 가서 여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증액을 요청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는 그런 계획이 서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신낙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외교에 관한 건데요. 외교통상부에서 외통위 위원들에게 증액 요청하신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 국가브랜드가치제고사업으로 28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짤 때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가 급조한 것, 그래서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선 상태에서 30여 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해 놓은 것이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기초작업, 사업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나 또 그 외에 기본적인 자료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외부 자문도 필요하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일단 증액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일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이것을 포함해서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문학진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본질의 마지막 순서인 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송민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위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영유권공고화사업 비용이 많이 늘었네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78% 이상 증액이 돼서 12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 액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거 가지고 과연,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이거 갖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씩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외교부가 그동안 독도영유권공고화사업의 결과물로 고지도 같은 것 많이 수집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고문서도 많이 수집을 하신 걸로 압니다.

독도자료실이라고 운영하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위원 그 독도자료실이 공개돼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은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왜 비공개로 하나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왜 그러느냐 하면 대부분의 자료가 독지가들의 기증에 의해서 된 거고 어떠한 귀중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그것이 장기적인 전략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전략적인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

다는 논리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지도가 어떤 것들이 있고 과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고지도뿐만 아니고……

○박선영 위원 문헌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대외비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 대외비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일부는 대외비로 하고 일부 필요한 것은 동북아역사재단하고 협조해서 그쪽으로 이관해서 좀 공개를 하고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요,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고지도 수집이나 고문헌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똑같이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칸막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고지도라는 것이 어디 시장에 가서 그냥 상품 쇼핑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구하고 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이런, 쉽게 말하면 좀 전문가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기관이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선영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지도가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 보관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요? 다 지금 대외비로 되어 있던데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을 위해서 각 부처 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대충 외교부가 지금 집대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많은 자료를 우리가 대외비 또는 Ⅲ급비밀로 분류해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국회의원은 Ⅱ급비밀까지 볼 수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해도 그 목록을 안 주시던데 그 까닭은 뭔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게 필요하실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드린다기보다는……

○박선영 위원 저희 방에서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대외비라는 말씀만 하시고, 만약에 국제재판소에 갈 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은 비공개다라는 답변만 실무자 측에서 왔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유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박선영 위원 아니,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시찰하실 기회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 최소한 국회의원한테는 그런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아, 물론입니다.

○박선영 위원 장관께서는 물론이라고 하시는데 밑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안 주거든요. 이것은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당연히 중복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외교부가 2007년도에 자체 평가한 영유권공고화 연구용역의 평가입니다.

보면은요, 엑설런트 해서 E등급, 알파벳 E등급 이것은 논문을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100점을 받은 논문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S등급, 향후 국제재판과 관련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논리나 증거자료를 포함한 게 단 한 건이었고 대부분의 것이 B등급,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논리를 그냥 정리한 것 이것이 10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의 혈세로 엄청나게 예산을 책정해서 연구용역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정부가 영유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또는 향후 국제재판소에 갔을 때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공개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78%씩 예산을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점이 매우,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국민의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자료를 한 건을 수집한다는 게 모래밭에서 다이아몬드 하나 줍는 것과 같이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할 경우에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학진 간사, 박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영 위원 이 논문에 대한 과제 평가가 제3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가 평가한 게 아니라 외교부에서 자체평가한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지요.

○박선영 위원 외교부에서 자체평가한 게 이 정도로 나왔으면 학자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라고 그러면 이보다 잘 나오기는 결코 어렵겠지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신다면 연구용역사업을 하실 때 좀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선영 위원 재외국민보호콜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말 그대로 재외국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박선영 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은 어떻습니까? 실제 운영은 여권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느냐, 비자 받는 방법이 어떠냐 주로 이런 것을 상담하고 있어서 명실상부한 재외국민을 위한 콜센터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이 제도의 개선방안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 질문은 상담실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실은 아웃소싱 형태로 현재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회사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왜 일용임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으로 나가야 되나요?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일용임금이 왜 나가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이 아마 오히려 전체적인 맥락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맡길 경우 아웃소싱 비용이 너무 커지고 또 전문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아웃소싱하고 일부는 자체 예산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09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요, '시설관리용역 등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용역 대상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일용임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게 기재부가 2009년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내린 가이드라인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셔도 됩니까?

이것 명백한 예산편성 지침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외부용역비는 위탁사업비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조직의 성격이라든가 그것에 따라 다 다르지요. 획일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박선영 위원 그래도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어서 분명히 지침 위반이고요. 이런 예산편성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넣어 주시고요.

수입대체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편법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송민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송민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께서 제가 FTA와 관련해서 발언해 온 데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신 것 같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미국과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미 FTA가 결함이 있다, 이것은 새로 봐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오바마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 당선자가 되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수정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미국 쪽에서 재요청 요구를 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런 거지 제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재

협상 해야 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바로 그런 점에서 기존에 있는 한미 FTA의 협상 내용이 균형 있게 돼 있습니다. 미국한테도 좋고 우리한테도 좋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비준을 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 송민순은 지금이라도 바로 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특히 오바마 후보가 공개적으로 서한을 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미 FTA를 살리기 위한 방안에서 탄력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한 것을 마치 제가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데 대해서는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저로서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진 송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FTA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바로 찬성하실 수 있다 이랬으니까 상정하고 바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송민순 위원 그것은 지금 있는 문안 그대로 수정 없이 한다면 찬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무리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추가로 1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송영선 위원님부터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위원 방금 송민순 위원님이 바로 상정하면 해 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하고요.

남북관계는 통일부 소관이 맞지만 한미 관계에 남북관계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외통부도 아주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는 데 동감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위원 그렇다면 질의라기보다 좀 주제넘을지 몰라도 외통부가 이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라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바마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외통부가 확실히 해 줄 것은 '오바마가 북핵 비핵화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화당보다 물렁하지가 않다, 확고한 전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는 북한의 비핵화도 절대적으로 요구를 하지만 더더구나 거기에 덧붙여 북한 주민을 굶주리게 하고 정치수용소를 철폐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경제 제재를 분명히 연계시킬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홍보를 하거나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오바마를 선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 교란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알면서도 속는 체해서 우리 측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남남갈등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외통부도 제가 볼 때는 한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구나 미국을 가장 큰, 소위 말하는 협력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외교부 정책 차원에서는, 오늘 점심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성격을 저는 일본 사람이라고 봅니다. 공화당은 한국 사람 기질이에요. 민주당, 일본 사람들은 대화하고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원칙 정해 두고 여기에 안 맞으면 그냥 죽여 버립니다. 그런데 공화당 사람들은 코피 터지고 시끄럽게 싸워도 끝에 가서 죽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시 CVID로 시작해 가지고 핵 사찰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그냥 테러지원국 풀어 줍니다. 용두사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칫 북핵을 적당하게 해도 넘어갈 거다, 또한 오바마는 물렁해서 나이브(naive)해서 김정일 말에 쉽게 속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의 행동에 대해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수준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기다리는 것이 좋은 전략인가를 설명하고 백업해 주고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통일부뿐만 아니라 외통부도 분명히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진정한 신뢰에 의해서 남북관계를 끌어 왔습니까? 천만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년간 7조 7000억에 해당하는 현물과 현금 지원을 그 돈 어디 썼는지 한 번도 검증하지 않고 줬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만약에 지금까지보다도 훨씬 더 적은 지원을 하면서 일일이 쓰는 돈 검증을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장애물에 부

딪히고 경색 관계가 더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 당장 남북관계가 난리가 나는 것처럼 온통 난리입니다. 그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판문점을 통한 통화선이 30개 되는데, 그 판문점 통화선이라는 게 남북회담 할 때 필요한 거고 그다음 기자들 취재할 때 자료 보내 주는 라인이다, 그 외에 남북 간에 열린, 군사 간에 열려 있는 경의선, 그다음에 동해선을 통해서 협력해야 될 9개 선은 분명히 살아 있고 또한 해상로도 살아 있고 공중선도 살아 있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것은 김정일 자신이 6·15와 10·4 선언 정신에 가장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또한 개성공단 사업이야말로 가장 합법적인 외화를 벌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 쉽게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제적인 그리고 우리 인명 보호에 대한 철저한 라인을 갖고 있다, 그것을 피상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조목조목 물론 비밀사항까지 얘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언론이 완전히 도배를 해서 온갖 혼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을, 지금 외통부가 다른 일도 많으시지만 이 부분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해 활동을 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송영선 위원님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송민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위원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 이것은 아무리 봐도 북한한테 도움이 안 되고 또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그러한 행동이나 발언을 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지지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은데, 다만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는 '진정한 대화를 하자, 남북 간에 대화를 해서 풀자'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실제로 취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그러한 진정한 대화 제의를 뒷받침하는 행동이 좀 모자란다 이런 것을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UN인권결의안,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개선해야 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국제적인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권결의에 찬성하는 것과 UN인권결의안에 우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석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권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 플러스알파로 나간 건데 그것이 갖는 의미, 그것이 우리의 대북 대화 제의 이런 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부가 정말 실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원칙과 실용을 조화시키는 데 균형이 깨어졌다 ㅈ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예산 문제 말씀이지요.

지난번 여러 번 회의에서 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국제교류재단법하고 재외동포재단법을 우리가 2005년에 2년간 조건으로 개정을 해서 국제교류재단의 예산 일부를 재외동포재단에서 쓰도록,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국제교류재단 예산의 38.6%가 재외동포재단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제교류재단 예산을 보니까 작년부터 기금이 잠식되고 있는 사정이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려면 공공외교·문화외교가 잘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 구조 가지고는 정말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일본의 재팬 파운데이션(Japan Foundation) 같은 경우에는 기금적립금이 1000억 엔이 넘어도, 1000억 엔이 넘습니다. 1000억 엔이라면 우리 식으로 하면 1조 5000억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적립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출연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제교류사업, 한국의 이미지를 올리는 공공외교를 하는 이러한 사업이 기금 자체로서 잘되도록, 정부에서 국제교류재단에 돈

주고 하면 정부 돈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돈 받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하고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금으로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좀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한편 재외동포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00만 재외동포재단이 국제교류재단에서 돈 받아 가지고 마치 하부기관처럼 돈을 받아 쓴다 이러면 자존심 상하고, 우리 재외동포 정책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2005년에 진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한 건데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국제교류재단법 관련해서 법안도 제출은 해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몇 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교부장관과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세 분으로부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정하는 것은, 아까 국제교류재단 예산 전체가 아니고 사업비의 38.6%가 동포재단으로 가네요. 그것은 염두에 두시고, 세 분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위원회의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계실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사실 정부의 연기금 운용 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게 아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코리아 파운데이션 설립 법과 취지가 따로 있고 또 재외동포재단은 정부의 별도 예산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상에서 아직 그런 잘못된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거에 관해서 우선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사장께서 좀 추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관께서도 지금 동일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일단 2009년도 예산은 저희가 작년도보다 5억을 깎아서 195억 원 지원토록 해서 지금 국회에 동의 요청을 내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손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명년도에, 지금 송 위원님께서 이미 법안 제출도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 협의에 저희들이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취지에는 우리 양 기관 및 외교부가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만 동의를 해 주면 시정이 될 것 같으니까 내년 초부터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우리 이사장님 말씀 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존경하는 송민순 위원님, 의원발의를 하셨다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도 좀 했습니다마는 역시 한계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민순 위원 아니, 지금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동포재단에서 직접 발로 여기저기 뛰라는 말씀이지, 저한테 힘을 보태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것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제가 지난번에 처음 취임 인사 오셨을 때 그랬지 않았습니까? '직을 딱 걸고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동포재단 직원들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전체가 우리 권 이사장님에 대해서 진정한 존경심을 가지고 동포 정책이 제대로 됩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국회에서 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끝마무리로 지나가는 걸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법안까지 제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로 좀 뛰십시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저희들도 상급 기관인 외교부에다 공문도 내고 나름대로의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원한 답을 못 얻었는데 위원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송민순 위원 아니, 지금 마이크 껐지만 제가 처음으로 마이크 끈 상태에서 말씀드리는데, 재외동포재단에서 외교부에 공문 하나 보내 놓고 그 사본 저한테 하나 보내 주면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

닙니다.

권 이사장님, 지금 제가 그냥 지나가는 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하시고요. 그 공문이 몇 줄 간 거 보면 다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냈다는 거. 소위 뭐라 그럽니까? 자기 책임 회피성 이러한 행정조치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문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현 위원 늦은 시간에 짧게 몇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독도 예산이 21억 원으로 되어 있다 4억 원으로 줄었고요.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예산이 30억 원으로 있다 11억 원으로 줄었거든요.

장관님, 이거 원래 계획하신 대로 돈만 있으면 쓰실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런데 장관님, 이게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좀 구조조정을 하거나 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글로벌 청년리더처럼 좋은 프로그램도 보면 미국 편향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개발도상국가와의 문화교류라든가 청년교류는 오히려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산 구조로 보면. 거기도 채울 게 있고,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는 내부에서 좀 조정을 하시고 다른 한쪽으로는 저희들이 타 부처와 싸울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내부에서 할 것을 얘기드린다면, 에너지협력회계에 160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거 재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과감하게 100억을 줄이시고 한 60억만 쓰시고요. 그 100억을 사람한테 투자하고, 특히 청년들한테 투자하고 전 세계와의 교류를 확산하는 쪽에 쓰시면, 그런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고 예산조정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재정부를 설득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착안이시고요. 그 문제는 구체적인 내역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특히 제가 좀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반기문 총장까지 배출한 마당에 5년 내지 10년을 목표로 과감한…… 유엔기구라든가 다자외교를 위한 기구라든가 국제기구, 국제연구소, 다보스 같은 것을 한국으로 더 자주, 많이 또 아주 상주하게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빅 픽처는 커녕 아예 초기 기초연구를 위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얘기는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빠진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러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예결위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꼭 반드시 한국에 유치해야 될 여러 가지 국제기구라든가 유엔기구라든가 다보스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민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외교통상부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구상을 간단하게 스케치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료는 있지만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구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한 2, 3년을 내다보면 외교통상부 내에서 과로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비자면제 프로그램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 미국 방문하겠지요, 그다음에 글로벌 청년 리더로 몇천 명씩 추가로 가겠지요,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 있지요 또 전 세계적인 위기, 이런 것들을 결국 다루시다 보면 굉장히 수요가, 외교 커패시티 빌딩(Capacity building)이 필요한 때인데 외환 때문에 더 위축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푸는 방법은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FTA와 함께 채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FTA만 미국 유럽 중국하고 이렇게 진행하시지 말고, 저는 그것을 반드시 하라는 사람이지만 거기다가 FTA와 연결해서 수출세를 반드시 통과시키세요. 그래서 전체 추가되는 수출에 대해서 수출기업들이 한 2%를 부담하면 몇조 원의 기금이 매년 생깁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제협력과 사회책임 양방향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피해산업 보강에 쓰시고 국제협력을 FTA를 통해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대

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할 역할을 다 하겠다 이런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재정부장관한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달라 그러시는데 지금 엔캐리의 외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잘 모르겠습니다.

○문국현 위원 35조가 넘는데, 우리 돈으로 450조가 넘거든요. 이것 앉아서 150조 이상을 우리 기업인들과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라든가 의사 이런 분들이 부담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보지 않고 환율만 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자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몇 년간 연장시키시는 것, 롤오버를 시키시거나 이러는 것은 장관님과 기재부장관이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이상득 위원께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니까 세 분이 반드시 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외교부 예산이 몇조가 늘 수도 있습니다. 첫 해에 늘 수는 없습니다만 외교부 예산이 2조 이렇게 늘어가야 하는, 국민들한테 필요성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도 좀 도와주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문국현 위원 고맙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박상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천 위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FTA에 대해서 재협상 요구를 할 것으로 봅니까, 안 할 것으로 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지금 제가 공개적으로 그것을 예단하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박상천 위원 재협상 요구를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박상천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외교부장관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지.

오바마가 이것을 선거 때 공약을 했을 뿐더러 지난 5월 22일은 부시 대통령한테 공개서한을 보내 가지고 자기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고 하고 따라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자기가 취임해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금융위기가 오고 미국 자동차 3사가 지금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파산될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해서 약3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공약한 자동차 합의 재협상 요구를 철회하겠습니까, 더 악화됐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금년 내 비준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 왜 반대합니까? 한미 FTA가 한국과 미국에 다 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득이 되는데 왜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FTA를 반대합니까?

재협상 요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로요, 우리나라 국회의 위상은 말이 아니게 됩니다. 또 한국의 위상도 같이 떨어집니다. 한국 국회에서 이의 없다고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이 비준하는데 미국에서 재협상하자, 한국 국회나 대통령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지. 한국은 페루와 동격으로 위상이 추락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요구사항이 나오고 이렇게 한국이 비준까지 했는데 재협상 요구를 했다, 국민감정을 심히 자극할 것입니다.

어떤 당의 대표는 '광우병 파동과 유사한 파동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의 대표가 한 소리니까, 어느 당의 대표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닐 것이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로요, 재협상 요구를 미국이 해 왔을 때, 우리 쪽도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우리 쪽도 주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준동의를 해 놓고, 한국은 아무 이의 없다 이렇게 해 놓고……

비준이라는 것은 그 뜻입니다. 체결한 협상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회한테 물어보고 이의 없다고 밝혀라 이 소리입니다. 없다고 해 놓고 어떻게 우리 쪽이 요구를 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제위기가 왔는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그것을 인가하는 절차, 조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FTA는 훨씬 넓혀 놨어요, 그전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또 개성공단도 그렇고 그리고 농업 분야는 쌀과 거기에 관련된 16개 품목 외에는 전부 개방해 버렸는데 이것도 개방 예외를 더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 우리 쪽도 그렇게 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이의가 없다고 해 놓고 또 이의 있습니다 하고 그것을 들고 나올 겁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국 USTR 국장을 하던 아이젠스탯인가 이분이 엊그저께 전경련에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FTA 비준을 가지고 이렇게 압박카드로 쓰면 새 정부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껄끄러워진다.'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취임할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에 대해서, 더구나 의회하고 백악관에 공개서한까지 보낸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압박카드를 제출할 때, 우리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한미…… 특히 외교부장관은 한미 관계를 잘 조율해야 되는데 중대한 애로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비준하는, 저 사람들이 재협상 요구를 할 것인데 지금 비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만 가져오고 득이 없다 이래서 반대하는 것이지, 송민순 위원이 반대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쓸데없이 받는 부작용만, 국익에 해를 끼칠 비준 추진하는 그 노력에, 그 시간에 대비책 강구해야 합니다. 미국 측 요구가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우리 쪽은 뭘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기존 FTA 몸체를 그대로 두고 양해각서로 할 것인지 부속사안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분만 고치는 식으로 본체에 손을 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략을 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가 노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하고 국익에 명백한 해를 가져올, 자칫하면 정국을 또 한번 파동으로 몰아갈 이런 요구만 하고 앉아 있으면……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국내의 정치적 파급효과, 미국과의 관계, 국제적 파급효과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비준을 빨리 하라, 늦게 하라'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무조건 해 놓았으니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장관이 할 짓은 아닙니다, 밑에 실무자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장관은 그 정도의 안목은 있어야 돼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FTA를 비준할 기회를, 작년 6월 30일 이후에 지금까지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민주당이나……

○박상천 위원 그때하고는 달라요.

그만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러니까 안 한 이유가 재협상 때문에 안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천 위원 17대 국회에서 비준하려고 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에 했으면 차라리 낫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런데 그때 반대한 이유를 지금도……

○박상천 위원 더구나 내일모레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등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이런 식의 비준은 안 된다 이거예요. 17대에 했으면 더 탈이 없습니다, 17대에 했으면. 왜 그때 좀더 강력히 밀어붙이지 그랬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때 안 한 이유하고 지금 또 안 하자는 이유가 전혀 다른 논리이기 때문에……

○박상천 위원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리고 재협상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저는 합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상천 위원 빨리 대책 강구하십시오. 빨리 외교부가 대책 강구해야지,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쓸데없이……

하루 저녁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黃震夏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박진 정옥임 위원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정옥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玉任 委員 제가 사실 보충질의는 북핵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 질의를 제가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당시 문제가 됐던 NAFTA를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반대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반대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것을 비준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비준했습니다.

○鄭玉任 委員 비준시켰는데 그 당시 의회가 민주당 주도 의회였습니까, 공화당 주도 의회였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때는 공화당이었습니다.

○鄭玉任 委員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NAFTA를 비준하는 데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클린턴에게 자유무역이 중요하다, 이것 비준해야 된다라고 적극 권유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좀 말씀해 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오바마 후보의 최측근으로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램 이매뉴얼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는 재협상을 안 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와서 자동차 부문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해도 우리는 안 받을 겁니다.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리고 실제로 FTA를 통해서 미국은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는 데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섭니다.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이젠스탯이라는 사람이 전경련에서 한 얘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시는데 그 사람의 현재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서 나름대로 정부에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좀 의연하게 국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황논리에 따라서 논리를 바꾸면서 정말 중요한 FTA를 관철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 제가 정치 초년병으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핵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힐이 북한에 가 가지고 일단 구두로 합의를 봤고 그리고 나름대로 합의문을 만들었는데 명확치가 않아서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해서 좀더 명확하게 만든 것이 국무부에서 나온 상호 양해서라는 그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습니다.

그것이 먼저 합의한 문안이 있고요, 그것을 관계국 간에 회람을 해 가지고 의견을 내라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일본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무성 자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소위 레코드 오프 언더스탠딩이라는 것을 합의하면서 미·북한 간에 서로 양해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양해를 했는데 문서화는 미국의 국무부가 했고, 북한이 양해를 했기 때문에 쓰긴 썼는데 지금 북한이 딴소리하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면 힐이 속은 것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힐이 아마 조만간 자기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크리스토퍼 힐의 말만 듣고 조율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했는데 결국 북한으로부터 서면확인을 받지 않은 미국 측의 실수로, 사실 그동안의 북한 행태를 보면, 서면으로 안 해 놓으면 매일 뒤통수 맞는다는 그 행태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맞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러니까 그 미국 실수가 그대로 우리 정부의 실수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것을 우리의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이고요. 직접 북한하고 접촉해서 협상을 한 것은 미국이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얘기해 주었고 또 협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라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鄭玉任 委員 오전에 홍정욱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실제로 약속을 하고 검증합의서까지 만들어 놓고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플랜 B라는 용어까지 나왔었고 대안이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안은 뭡니까, 그러면?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관계국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하는 것보다는 한미 간에 또 한중 간에, 미·중 간에 협의를 거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鄭玉任 委員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10·3 합의내용을 보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양해가 되었느냐 하면 일단 신고서를 제출하고 불능화가 끝나면 2단계가 끝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라고 하는 것은 신고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검증하는 것까지 사실은 내용에 포함되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맞습니다. 그것이 저희 입장이고 북한은 검증은 별도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鄭玉任 委員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 이런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고, 어쩌면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할 때까지 6자회담에 응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와 함께 한국 정부가 차후 이러한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과 불가예측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참 좋으신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진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震夏 委員 저는 아까 질의한 것 가지고 끝내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플러스 저희 당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박상천 위원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책도 보완시켜야 한다, 저쪽에서 재협상 요구 들어올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대비책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것에는 하나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과 같은 논리로 해서 저희는 오히려 재협상 들어올 것이다, 들어올 것이다 해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자꾸 공론화시키면서 마치 미국이 분명히 재협상해 올 것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미리부터 비준동의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쪽으로 논리를 세우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우리가……

재협상이든지 무슨 방법으로 요구해 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협상은 안 해 올 것이고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안타깝게도 그러한 생각을 같이 나눌 분들이 민주당에 많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FTA 협상하고 막 그럴 때 민주당에서 저와 함께 다녔던 분들이 불행하게도 18대 국회에는 거의 다 안 들어오셨습니다. 유재건 의원님이라든지 김명자 의원, 정의용 의원, 채수찬 의원 이런 분들이 18대에는 전부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FTA와 관련해서 정확한 센서를 가진 분들하고 접촉을 안 하고서 추측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지난 5월에도 제가 정의용 의원이라든지 유재건 의원이라든지 김명자 의원과 18대 국회 되기 전에 미국에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을 듣고 왔던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오면, 온다고 쳤을 때 해 오면 저희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무슨 농업 분야든지 아니면 개성공단 문제든지 재협상을 해야 한다. 그것을 안 받을 것이란 말이지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저희가 미리부터 재협상 우리 것도 불만스러운 부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 측에서 해 오면, 우리가 비준동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을 때 미 측에서 요구해 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불만스러운 것을 가지고 협상하자, 하자 하는 국민적인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나오면 미국이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미감정은 더 불같이 일어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그것은 받지 마라, 우리 것 요구해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FTA, 아까도 송민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균형되어 있고 잘된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박상천 위원 별로 잘된 것은 아니지.

○黃震夏 委員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것이다 상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다 좋지만 왜 재협상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하면 그러한 결과가 뻔한데, 미국이 한국의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받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하자고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서 한미 FTA를 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재협상을 요구해 오지는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법을 찾겠지요, 저희하고. 그런 대비를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상정도 못 하고 토의도 안 하고 현재 책정된 예산도 안 쓰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냐?

관계되는 법규를 수정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 측에서 재협상 요구하는 것 대비한다는 얘기하고 상정도 못 한다는 얘기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그것이 또 우리가 기왕지사 대비책으로 써놓은 예산이나 그에 대한 보완책을 다루기로 한 법률 수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쪽인데 그것 자체를 못 하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동참을 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야 간에 함께 상정해 놓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분위기를 보고 와서 나중에 처리하자라는 것도 저희가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박상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 분석에 있어서 제가 의견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께서도 금년 내 비준을 통해 가지고, 정기국회 때 비준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겠다는 면도 있어서 야당 측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새로 이것은 논의가 되어서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국민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걸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진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선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박진 송영선 위원님!

○송영선 위원 몰라서 여쭤 봅니다. ‘상임위에서 상정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라.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라’ 이걸 묻는 것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겁니까? 이건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송영선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처음부터 ‘그거 묻지도 않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왜 한 번도 ‘상임위에서 이걸 상정하는데 찬성하느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가실 때 간사 세 분을 모시고 가실 때 상정 안 해 놓고 가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아주 과격한 용어를 썼는데, 상임위에서 이걸 끌고 와 가지고 ‘상정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직권상정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공청회를 할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시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걸…… 이건 물리력이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권상정도 아닙니

다.

○위원장 박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 FTA가 국회로 회부됐고 또 상임위 상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의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송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미 FTA를 우리 상임위 상정에 반대하는 분보다 이것을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하는 분이 더 다수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 FTA 상임위 상정 문제를 논의했고 또 월요일날, 17일날 그날은 저희가 예산안 의결 또 법률안 상정 이 문제를 다루는 날입니다. 이 FTA 상정 문제를 월요일에도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 뜻을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상정을 하도록, 또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상임위원장으로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위원 몰라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모든 것을 간사단 협의에 의해, 먼저 간사단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국회 상임위 운영, 그렇게 조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진 예, 의사일정을 간사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국회법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송영선 위원 그런데 간사단이 사전에 협의……

○위원장 박진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송영선 위원 예.

○위원장 박진 물론 상임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고 정쟁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사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또 다음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송영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100%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러면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민순 위원 제가 의사진행……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 박진 이 문제, FTA 문제와 관련된 건가요?

○송민순 위원 예,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하십시오.

○송민순 위원 존경하는 황진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좀 조용하게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여기 와서는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부가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미국도 지난 5월 22일 오바마 후보가 백악관으로 하여금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의회에 가면 찬반으로 분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출하지 말라, 좀 조정이 될 상황까지…… 이렇게 됐는데, 바로 그런 점을 앞으로도 이 의사,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을 진행시키는데 국론분열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런 국론분열을 가지고 우리가 소모적으로 하고 있으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환영 못 받습니다. 누구도 좋아 안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정부 관료들도 참 한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사전 정지 없이 그냥, 정부에서도 무작정 여기에 보내 놓고 논란해서 처리해라…… 성숙한 의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를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과 같은 동료 위원들이 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럼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이 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보통 '재협상, 재협상'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소고기 때도 재협상 문제가 나왔었는데 재협상이라는 말을 좁게 해석하면 이미 이루어진 기존 협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협

상의 본체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해서 수정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재협상이라는 것은?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리오픈(reopen)한다는……

○위원장 박진 리오픈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는 협상을 다시 뚜껑을 열고……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걸 무효로 하고 다시 하자는, 뚜껑을 열자는……

○위원장 박진 다시 하자는 거지요. 우리가 이런 재협상을, 국제 협정이나 조약을 하면서 우리가 재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글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박진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위원장 박진 그러면 어제 우리가 공청회를 했는데 여기, 한미 FTA 경제적 효과와 보완대책에 관한 공청회에 네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협상 얘기가 나왔을 때는 기존에 이루어진 협상, 말하자면 그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본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부속서한이나 또는 양해각서나 정책선언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해결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속서한이나 또는 양해각서나 정책선언 이런 것들이 전부 넓은 의미에서는 지금 추가 협상에 들어가는 거지요, 추가 협상?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이걸 재협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속서한이나 양해각서나 정책선언을?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 혼동돼서 쓰이는 것 같아요. '재협상' 그러면 무조건 이 본체를 열고 그다음에 새로 다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또 추가 협상도 재협상과 비슷한 의미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걸 분명히 구별해서 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속서한(side letter)이나 양해각서(understanding)나 또는 정책선언(policy declaration) 이런 것들은 본체에 손을 대지 않고도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들이지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렇다면 본체에 대한 비준이 이러한 추가 협상, 부속서한이나 양해각서나 정책선언하는 데 큰 지장이 됩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진 우리 한나라당에서 황진하 간사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든 아니면 추가 협상을 요구하든 이것은 반드시 비준을 하지 않고 끝까지 보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또 지금 장관 답변대로 이것이 부속서한이나 양해각서나 정책선언이라면 기존에 협상된, 기존에 체결된 이런 본체와 근간을 건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진 잘 알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지금……

○위원장 박진 잠깐만요. 용어가 '재협상', '추가 협상'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걸 저희가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충질의와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17일날, 월요일날 예산안 의결과 법률안 상정을 할 때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외교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월요일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제가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고 가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鄭玉任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딱 30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진 정옥임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鄭玉任 委員 속기록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속기록에 안 갔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진 들어갑니다.

○鄭玉任 委員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진 예.

○鄭玉任 委員 제가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제의를 한 건 전혀 아닙니다. 나름대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국회라면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이런 부분만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방이 있는 협상이라는 것이고, 아무리 미국이 우리와 동맹국가라도 이해관계를 다투는 일인데 우리가 먼저 '재협상' 아니면 '추가 협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국익에도 별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 또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속기록까지 된다면……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모두 비준을 해서 미국에게 정치적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는 것하고,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진 송민순 위원님!

○송민순 위원 지금 외교부장관님과 박진 위원장님 사이에 오고간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유명환 장관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셔서 그런데 가셔서 간부들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제가 이거 정정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약에 있어서, 협의에 있어서 부속의정서나 교환각서 등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그 합의 내용의 실체적인 변경이면 그 전체의 불가분의 일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약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속의정서 또는 합의서 그것이 문제의 실체 일부분이면 같이 국회에 와서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그렇겠지요.

○송민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런 점을 지금 박진 위원장님께서 갖고 있는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다 속기록에 있는 겁니다.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순 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 기초 위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장관 유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진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나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면 오늘 추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송영선 위원, 송민순 위원님, 진영 위원, 구상찬 위원님, 문학진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이범관 위원님, 이춘식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신낙균 위원님, 정옥임 위원님, 정세균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대체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외교통상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안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과 한국국제협력단총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신 송민순 위원님 또 정세균 위원님, 문국현 위원님, 그리고 송영선 위원님, 정옥임 위원님, 그리고 황진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미 알려드린 의사일정대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 위원(26인)

구 상 찬	남 경 필	문 국 현	문 학 진
박 상 천	박 선 영	박 주 선	박 진
송 민 순	송 영 선	신 낙 균	안 상 수
윤 상 현	이 미 경	이 범 관	이 상 득
이 춘 식	이 회 창	정 몽 준	정 세 균
정 옥 임	정 의 화	정 진 석	진 영
홍 정 욱	황 진 하		

○출장 위원(1인)

김 충 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 희 권
전 문 위 원	지 성 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통상부

장 관	유 명 환
제 2 차 관	신 각 수
기획조정실장	임 재 홍
조 정 기 획 관	최 종 문
국제기구정책관	신 동 익
조 약 정 책 관	황 승 현
재외동포영사국장	이 정 관
FTA정책국장	최 경 림
북핵외교기획단장	황 준 국
경 력 교 수	위 성 락

한국국제교류재단

이 사 장	임 성 준
사 업 이 사	한 영 희
기 획 이 사	김 성 엽
기획조정실장	김 회 길
한국학사업부장	박 경 철
연구장학사업부장	박 상 배
정책연구실장	김 태 환
총무인사부장	유 기 성
인사교류부장	황 오 석
문화예술교류부장	송 중 석
문화센터소장	윤 금 진
한국어사업부장	함 승 훈
미디어사업부장	박 미 숙
홍 보 부 장	임 정 은
기금관리부장	홍 성 수
검 사 역	김 찬 곤

한국국제협력단

총 재	박 대 원
이 사	조 원 호
이 사	장 시 정
이 사	장 현 식
이 사	안 동 원

재외동포재단

이 사 장	권 영 건
기 획 이 사	금 병 목
사 업 이 사	강 남 훈